

북한의 사회심리 연구

인쇄/1999년 12월 28일

발행/1999년 12월 31일

발행처/통일연구원

발행인/곽태환

편집인/북한인권센터

등록/제2-2361호(97.4.23)

(142-076)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전화(대표)900-4300 (직통)901-2528 팩시밀리 901-2546

© 통일연구원, 1999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판매처) 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 : 734-6818 · 사무실 : 394-0337

ISBN 89-87509-93-1

5,000원

연구총서 99-15

•
북한의 사회심리 연구

서재진

통일연구원

요약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
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북한주민들이 겪고 있는 정치적 억압과 경제적 결핍이 사회심리적 병리현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의 주요 발견은 북한주민은 억압체제하에서 기본욕구 충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써 야기되는 불만을 표출하는 것조차 억압되고 있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감정의 막힘과 정체를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주민들이 체제에서 심리적으로 이반하고, 사회일탈이 증가되자 북한당국은 사회통제를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 북한체제를 유지하는 두가지 기둥이 있다면 하나는 가혹한 처벌이며, 다른 하나는 가족연좌제이다. 무엇보다도 북한당국이 주민들의 식량난 개선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경제회생정책을 채택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그 과도기 동안 한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주민의 생존권 회복을 위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나아가 공개처형과 가족연좌제와 같은 비인도적 처벌방식을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국제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문제의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 요구된다.

1. 서론

소외의 개념은 원래 맑스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의 소외현상을 분석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시이멘에 의해서 발전된 대중소외(mass alienation)의 개념은 시민들이 자기가 사는 체제의 의미, 규

범, 가치 체계로부터 유리되거나 거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소외의 양상은 무력감, 무의미감, 무규범감 등이다.

맑스는 자본주의가 인간을 소외시킨다고 보아 사회주의로의 이행을 주장했으나 인간을 착취하고 소외시키는 측면에 있어서는 역사적 경험으로 보아 사회주의도 마찬가지이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인간소외의 현상은 더욱 심각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를 분석하기 위하여 만든 맑스의 소외 개념이나 대중사회의 소외를 분석하기 위한 시이멘의 대중소외의 개념만으로는 사회주의 하에서의 인간의 소외현상을 설명하는데 충분하지 않다. 동독 정신과 의사였던 한스-요하임 마즈가 동독 시민의 고통과 억압 체제하에서 경험하게 된 심리현상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한 감정정체의 개념이 보다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경우 좌절감을 느끼지만 그 좌절감이 집단행위로 분출되지 못할 경우 내면 심리세계에서 어떠한 현상이 발생하는 지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집단행동이 어려운 북한에서 욕구의 좌절이 공격적 행동이나 집단행동으로 발전되기 이전의 심리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심층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개념틀

욕구의 위계 및 동기유발의 개념

욕구불만족의 사회적 영향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유용한 개념의 하나는 Maslow의 욕구의 위계 및 동기유발의 개념이다. 매슬로우의 인간의 욕구를 다섯가지로 나누고(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 및

애정의 욕구, 자존심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그 욕구는 위계질서를 이루고 있으며, 하위의 욕구가 충족되어야 상위의 욕구가 유발되며, 그 욕구충족을 위하여 행위가 발생한다고 보았다는 점에서 그의 이론은 동기유발이론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위계의 욕구 사다리를 높이 올라갈수록 심리적 건강과 자아실현의 정도는 더 높다. 인간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생존하고자 하면 이들 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매슬로우의 분석에 의하면 기본욕구가 충족되면 인간은 행복하고 건강하며, 그렇지 못하면 노이로제의 증후를 보인다는 것이다. 그것이 집단적인 차원으로 발생하게 될 경우 사회적 심리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욕구의 불만과 감정정체이론

한스-요하임 마즈에 의하면 기본욕구 충족의 양과 질은 인간이 근본적으로 건전한 발전을 하느냐 아니면 병적인 발전을 하느냐를 결정하는 결정적 요인이다. 욕구를 계속 충분히 충족시킬 때만이 인간에게는 규칙적인 긴장해소가 마련되고 이와 더불어 확신, 신뢰, 자기 가치, 믿음, 희망에 대한 근본경험이 가능하다. 삶과 자연에 대해 공동체적 공감, 존경심, 관용을 가지게 된다.

이와 반대로 자연스런 제반 기본욕구가 불만족할 때 긴장, 노여움, 불만, 불안의 상태가 야기된다. 한스-요하임 마즈는 이 상태를 결핍 증후군으로 정의하였다. 이 상태는 이미 그 자체만으로도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무거운 부담이 된다. 정상적으로 인간은 결핍상황에 대해 감정적 반응을 하며, 이러한 감정표출을 통해 심적 부담을 덜게 된다.

그러나 그와 같은 반응의 감정까지도 금지될 경우 감정정체(gefühlsstau) 또는 감정막힘이 일어나게 된다. 만성적 결핍상황은 결국 불안정, 열등감, 불신, 절망, 무의미 등을 경험케 하여 이것이 기본경험이 된다. 감정정체는 만성적 긴장상태를 낳는데 이 상태의 원인은 대개의 경우 의식되지 않고 있지만 이 상황은 끊임없이 긴장해소 반응을 위한 밸브를 찾고 이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억압체제하에서의 자아방어기제 및 소극적 저항의 개념

어느 사회든지 인간은 사회적 억압에 수동적으로 당하고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인간은 단순히 사회의 수인(囚人)이 아니라 사회를 구성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다. 정치적 체제의 성격에 따라 사회적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사회주의 체제라고 하여 인간은 인간의 본질인 mind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한스-요하임 마즈는 억압체제하에서 가장 보편적인 자아방어기제는 자신에 대한 억압이라고 보았으나, 보다 다양한 자아방어기제의 개념을 프로이트에게서 발견할 수 있다. 성적 억압이 심했던 빅토리아시대에서 신경증을 분석했던 프로이트가 억압체제하에서 심리적 자아방어기제의 개념을 발견해 냈던 점을 참고하여 정치적 억압이 격심한 북한사회에서 북한주민들은 어떠한 자아방어기제를 발전시켰는지에 대한 개념을 시사받을 수 있다.

프로이트에 의하면, 방어기제는 사회에 대한 부적응이 아니라 그것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적응의 방식이다. 긴장을 해소할 수 있는 수단 없으면 인간은 압도당하여 마비될 수 있다. 프로이트는 가장 자주 사용되는 방어기제로서 억압을 들었다.

자아방어의 또 다른 형태는 자신을 억압하고 욕구를 충족시켜 주

지 않는 체제에 통합하여 괴로워하기보다는 체제로부터 거리를 유지함으로써 감정적 자유를 느끼는 것이다.

이러한 심리적 이반의 상태에서는 인민들은 점차적으로 공식 가치에 대하여 무관심해졌고, 사생활로 은둔했으며, 알콜에 탐닉하기도 하고, 물질과 개인적 관심에 몰두하기도 하고, 사회적 규범은 무시하며, 체제의 변두리에서 사는 방식을 발전시켰으며, 비합법적인 경제행위에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연성이탈(soft exit)이 사회주의적인 자아방어기제의 유형들이다.

3. 북한주민의 사회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요인

정치적 억압체제

레닌의 유산중에서 사회주의 체제의 억압적인 측면 두가지는 권력의 집중과 테러이다. 사회주의 체제에서 권력집중이 제도화하게 된 것은 혁명과정에 있어서 당의 전위적 역할에 관한 레닌의 이론과 실천에서 비롯되었다. 북한의 정치체제도 다른 사회주의와 마찬가지로 모든 정치적 권력이 관료화된 전위당인 노동당에 집중되어 사회의 전 구조가 수직적 통제하에 들어있다. 모든 권력이 1인과 일당에 집중되었다. 옥상옥을 이룬 관료기구인 모든 시민에 대하여 생사여탈권을 갖는 권력을 가지게 되었다. 당의 관료, 국가기구의 관료들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게 되었다.

북한의 권력집중은 다른 사회주의보다 더욱 심한 편이다. 노동계급을 선도하는 당의 전위를 넘어서 당을 영도하는 수령의 전위 개념으로 한층 더 발전시켰다. 북한은 당의 독재가 아니라 수령의 독재인 것이다.

레닌주의의 또하나의 유산은 사회주의 국가들이 테러에 과도하게 의존했다는 점이다. 북한도 레닌주의의 전통을 고스란히 물려받았다. 테러는 자주 사용되는 통치방식의 하나이다. 특히 90년대 들어서 자주 사용하고 있는 공개처형이 그 한 사례이다.

북한에서 이처럼 공개처형과 같은 폭력에 의존하여 정치를 하는 것은 공포심을 유발시켜 주민들을 심리적으로 억압시키고, 체제에 대한 불만과 일탈의 의지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서는 권력이 당, 국가, 수령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자율적인 시민사회의 영역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각급 행정기관은 물론이고, 각급 직장과 학교, 가정 등 주민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모든 사회영역에 당조직이 편성되어 있다.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구분이 없는 만큼 정치적·경제적으로 사생활에 공적 침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에서 사적 영역에 대한 또 하나의 통제방식은 사적 영역의 시간적 통제이다. 개인의 자유로운 시간을 제한함으로써 공식적 업무외에 딴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한다고 한다. 시간적 여유를 주면 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유시간을 주지 말라고 지시가 내려온다고 한다. 생산시간 이후에는 학습과 조직생활이 계속되는 것이다.

북한체제에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억압적인 제도는 암행 감시망을 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회안전성, 국가안전보위부, 당조직에서 정보원을 각 직장, 각 조직에 운용하고 있다. 정보원은 기관에서 파견된 기관원이 아니라 일반주민중에서 출신성분이 좋은 사람들 중에서 비밀리에 임무를 부여하여 정기적으로 주민동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사회주의 정권은 대중이 다른 대상에 충성하는 것을 예방함으로써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인간관계의 원자화를 조장하는 제도의 하나가 상호 고발제도이다. 매주 실시하는 생활총화도 인간관계의 원자화를 조장한다.

소련에서 레닌은 집단테러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연좌제(collective guilt)를 사용했다. 북한은 유교적 전통을 살려 가족연좌제를 채택하고 있다. 가장 인간적인 측면을 볼모로 잡는 통제양식이다. 북한체제에서 개인의 불만표출과 집단행동을 통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장치는 가족연좌제라고 볼 수 있다.

경제적 결핍

매슬로우는 생리적 욕구를 1차적 욕구로 보았는데 이는 정치적 억압보다 경제적 결핍이 더욱 큰 고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경제적 결핍은 생존권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공식경제가 마비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암시장에서 식량을 상당부분 조달하고 있다. 북한당국은 주민들의 이러한 추세를 부추기기라도 하듯이 ‘강행군 자력갱생’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과거 국가차원의 발전전략이던 자력갱생을 개인 가계 차원의 자력갱생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생존권의 위기가 극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생리적 욕구가 불만족될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4. 북한주민들의 결핍증후군

욕구불만 및 박탈감

식량난과 정치적 억압으로 북한주민에게 생긴 욕구의 결핍증후군은 절대적 차원의 욕구불만(absolute deprivation) 뿐 아니라 상대적 차원의 불만(relative deprivation)을 느낀다는 측면에서 결핍증후군이 매우 심각한 편이며, 개인의 불만은 이미 사회적 불만으로 발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물리적 억압 때문에 집단행동으로 표출되지 않고 억압되어 있을 뿐이다.

절대적인 결핍감보다 사회적·정치적으로 더 의미있는 것은 상대적 박탈감이다. 상대적 박탈감은 나 자신과 남, 현재와 과거의 비교라는 관점에서 느껴지는 불만이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정치적·사회적 저항으로 연결되는 감정이다.

북한주민들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과거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라 최근 들어서, 특히 김정일의 등장이후에 심해졌다는 점에서 시대간을 비교하는 상대적 불만감이 크다. 김정일시대에 대한 부정적 평가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 박탈감의 또 하나의 축은 계급간 불평등의 심화이다. 북한의 일반주민들은 고위급 간부들이 상대적으로 매우 부유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간부계층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적대감이 매우 고조되고 있다는 점에서 계급간 상대적 박탈감이 매우 심하다고 볼 수 있다.

공격적 행동

욕구의 만족이 방해되면 욕구불만의 상태가 되며, 욕구불만이 강해지면 공격적인 행동(aggressive behavior)을 하게 된다. 공격적인 행동은 가능한 한 욕구불만이라고 생각되는 대상이나 사람에 대하여 자기의 적대감을 직접적으로 나타내고자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욕구불만의 원인이 되는 대상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공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대상인 동료와 말다툼을 하거나 싸움을 한다.

90년대에 남한으로 귀순한 북한 사람들의 거의 100%에 가까운 사람들이 비슷한 내용의 증언을 하였다. 북한 주민들은 “쪼들리고 꺾박 받으니까 이제는 악밖에 남은 것이 없다”는 말을 자주한다. 북한주민들은 짜증을 많이 내고 말이 거칠고 언성이 높다. 생활과정에서 쌓인 스트레스가 풀리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이다. 그래서 직장 동료, 친구, 이웃간에 걸핏하면 싸움질을 한다는 것이다.

절망

북한주민의 사회심리의 한 특징은 절망이다. 북한주민들은 김일성 사망이후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었다고 한다. 북한주민들에게 김일성은 메시아로 인식되었는데 메시아의 급작스런 소멸은 전체 사회에 절망적 분위기를 야기시켰다고 한다. 김일성이 죽은 마당에 이제 생활이 나아질 전망이 전혀 없다고 느끼기 시작한 것이다. 일반 주민들은 나라의 희망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망하는 것은 시간문제이며, 언젠가는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북한주민들의 절망적 심리는 음주에 탐닉하는 행위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에서 자살은 반체제 행위로 규정되어 있으며 유가족까지 반

역자의 가족으로 몰리기 때문에 자살율이 낮은 것이 특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식량난과 경제난으로 인하여 자살율이 다소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노인들이 자살을 많이 한다고 한다.

고착

북한주민의 대다수는 현재의 상황에 절망하고,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으며, 1차육구에 집착·고착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 소속감의 육구, 사람의 육구, 이상적 자아실현 등의 상위의 동기는 상실된 것이다. 개인의 꿈, 장래희망, 비전을 가질 여유가 없다. 내일 당장 굶어 죽을 형편인데 내일 희망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당장 먹고 사는 일에만 신경쓰면서 사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핵심계층, 동요계층, 적대계층을 막론하고 자신과 자기가족의 1차육구 해소에 전념한다. 지식의 높낮이, 학력수준에 상관없고 직업별로도 차이가 없이 생존을 위하여, 1차육구 해결을 위하여 산다고 한다. 신분상승, 입당, 권력잡는 것이 모두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을 위한 것으로 인식된다고 한다.

고착의 정치적 영향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첫째, 1차육구에의 고착은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극대화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둘째, 북한인 대다수는 목구멍에 풀칠하는 문제 때문에 정권에 대한 불만, 김정일에 대한 반감을 가질 여유조차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5. 사회심리적 병리현상

감정정체

억압적인 전체주의 체제에서 발생하는 사회심리가 북한에서도 발견된다. 엄격한 통제와 처벌 때문에 불만감, 좌절감을 표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북한주민들은 문제의 본질을 훤히 꿰뚫어 보고 있으면서도 표현은 못하며 잘못된 사회라는 것을 다 알면서도 표현을 못한다고 한다. 이러한 북한주민의 감정상태를 가장 잘 표현하는 개념은 Melvin Seeman이 정의한 개념인 무력감(powerlessness)이다. 무력감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느낌이다.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내가 비판도 할 수 없고, 저항도 할 수 없다. 자살 조차도 할 수 없다. 자살은 가장 극단적인 반역행동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유족들이 반역자 가족취급을 받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자포자기의 심리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성격변형

북한주민의 수동적인 성격을 가장 잘 표현한 말이 북한의 전 군예술선전대 작가 겸 연출자 이재의 “노예적 근성”이라는 말인 것 같다. 이재의 증언에 의하면 주체사상에서 자주적 인간상, 창조적 인간상을 강조하지만 노예적 근성이 북한주민의 실제 모습이라는 것이다. 북한의 작가들이 흔히 하는 말의 하나는 “왜 우리 민족은 노예적 근성이 골수에 사무쳤나”라는 것이라고 한다.

북한주민의 일상생활속에서는 다른 측면이 있다. 정서적인 위축에

도 불구하고 현실에 능동적으로 적응해서 생존하고자 하는 생존의 본능은 매우 강하다고 한다. 공적 세계에서는 수동성이 특징적이지만 개인의 문제에 있어서는 세워진 법과 질서속에서 어떻게 뚫고 나갈 것인지를 생각하지 주눅들지는 않는다고 한다.

불안

북한 주민들은 두가지 종류의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첫째는 언제 내가 정치적 희생물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불안감이다. 일반적으로 억눌려만 살았기 때문에 심리속에 공포심이 있다고 한다. 공개처형이 공포심의 주요 요인이 되며, 이웃의 사람들이 갑자기 행방 불명되는 사건 등이 일상적으로 의식되고 있다고 한다.

둘째는 생활에 대한 불안감이라고 한다. 과연 내가 저 죽어가는 사람처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불안감이 있다고 한다.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는 현실에서 생존 그 자체가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신분이 높을수록 정치적 불안이 많고, 신분이 낮을수록 생활에 대한 불안이 많다고 볼 수 있다. 상층부는 이전보다 개혁개방의 후유증이 많아 더 많이 숙청되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생활을 많이 하는 등 특별한 신분에 있는 사람은 감시원을 더 많이 의식한다고 한다.

6. 북한주민의 방어기제의 발달

자아억압 (repression)

북한에서 가장 발달한 자기방어기제의 개념은 자아억압이라고 볼 수 있다. 강력한 통제하에서 생존하는 길은 자기의 불만 표출을 억제하는 수밖에 없다. 북한주민들은 경제난의 원인과 책임자를 자꾸 신경쓰면 스트레스가 생기니까 그런 생각을 거두어 치우고 자기 조건에 맞게 살고자 한다고 한다. 북한체제의 엄격한 감시와 통제의 사회심리적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불만대상 전가 (projection)

북한 주민은 체제와 최고통치자에 대한 불만을 직접 표출하지 못하고 불만과 분노를 다른 대상으로 분출한다. 스트레스는 정치적 이유에서 쌓이는데 친구를 대상으로 감정이 폭발한다고 한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싸움을 자주한다고 한다. 둘째, 정치범으로 연루되지 않으면서 불만을 표출하는 방식이 간부들에 대한 불만표출과 적대행위이다. 정치적으로 성역을 피하면서 경제난과 식량난에 대한 책임을 지도부에 돌리는 방식이다. 이러한 자아방어기제의 논리는 김정일은 올바른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중간간부들이 김정일의 정책을 올바르게 수행하지 않고, 허위보고하며, 부정부패를 많이 하기 때문에 경제난이 왔다는 것이다.

대체보상: 절도 및 물질주의

국가의 배급이 중단되고 식량조달이 어렵게 되자 가장 즉각적으로 나타난 대체보상 노력은 국가재산 및 공장 생산물에 대한 절도이다. 사회주의 국가의 인민대중은 국가를 필요하면 이용하고 착취할 수 있는 그 무엇으로 간주한다. 비공식영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자원은 모두 국가로부터 차용해오거나, 훔쳐오거나 아니면 횡령한 것이다.

북한주민들은 경제난과 물질적 결핍상황에서 오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광범위한 대체보상노력에 탐닉하고 있다. 주민들은 국가 재산과 공장 생산물에 대한 줌도독질을 많이 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장에서 무언가를 훔쳐온다. 그러나 그것은 발각되지도 않고 따라서 처벌도 할 수 없다고 한다.

이기주의

개인생존의 집단주의적 보장이 작동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기생존을 위한 방어기제는 자기 스스로 자기이익을 지키는 것이다. 북한에서 공식이념은 집단주의이나 실제 생활은 집단주의보다는 이기주의에 가깝다. 실제 백성들 속에서 자기 가족이 죽는 현실에서 집단이 자기를 돌보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

범죄

자기방어기제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는 범죄이다. 극단적인 결핍상태에서는 범죄를 통하여 생필품을 획득하게 된다. 절도, 강도가 가장 흔한 범죄이며 이 과정에 살인도 빈발한다.

북한에서 범죄가 경제난과 더불어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되었다. 김일성 사망후인 1995년을 기점으로 북한의 사회질서는 매우 문란해졌다고 한다. 매우 원시적이고 잔인한 살인사건이 자주 일어난다고 한다. 북한에서 범죄의 1순위는 군대이며, 2순위는 젊은층이라고 한다. 극한적 상황에서 참을성 없는 젊은이와 무서울 것 없는 군인들이 마구 날뛰는 것이다.

이중성 및 심리적 거부

욕구불만과 정치적 억압 사이에서 발달하는 자아방어기제의 하나는 실제 감정을 숨기고 정치적으로 요구되는 허위감정을 표면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북한주민들에게서 실제감정과 조작된 감정을 구분해야 한다. 실제감정은 매우 순수하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감정에는 조작된 감정이 많다는 것이다. 공식적 석상에서 하는 일, 사석에서 하는 일이 완전 별개라고 한다.

통치이념인 주체사상도 당국의 의지와는 다르게 이해되고 있다. 정치학습 교원의 말끝마다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 자기운명을 개척하는 것도 자기자신”이라고 하면서도 행동으로 연결시켜주지 않는다. 북한주민은 자기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라는 것은 자신이 스스로 식량구입하는 일에 전력을 다해서 먹고 살아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통치이념인 주체사상이 역효과를 내고 있는 셈이다.

사회주의 시민들이 개발해낸 또 하나의 자아방어기제는 기존체제에 대한 심리적 거부이다. 조직적 저항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심리적 거부라는 대안을 사용하는 것이다. 정치적으로 기소되지 않을 범위내에서의 사보타지를 하는 셈이다.

7. 사회적 성격의 유형

순응형

순응형에 속하는 집단은 어린 학생들, 해외경험이 없는 자 중에서 의식수준이 낮은 집단과 간부의 일부가 여기에 해당된다. 북한체제의 사상교육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사람들이다.

북한의 귀순자들은 김정일을 믿는 사람이 30~40%정도 된다고 평가한다. 이들은 김일성 체제로부터 교육받은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 북한체제가 50년간 시행한 교육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사람들이다.

심리적 이반형

북한체제에 체제순응형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반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심리적 이반자가 많다는 것은 정권의 정당성이 쇠퇴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일성 살아 있을 때만 해도 사회주의의 정당성은 살아있었던 것처럼 보인다. 김일성이 살아있는 한 굶어 죽지 않는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러나 김일성 사망이후 반발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현재에 대한 좌절감, 미래에 대한 희망상실이 그 원인이 된다. 일반대중들은 물론이고 인텔리 간부들도 김정일로는 안된다는 생각이 많아졌다고 한다. 북한주민들이 절대적으로 궁핍한 현실을 체험한 데서 나오는 것이다.

파괴적 현상탈출 심리형

상당수의 북한주민들 가운데 극도의 절망감에서 나오는 파괴적 탈출심리가 표출되고 있다. 단순히 심리적 이반에 그치지 않고 김정일에 대한 불만의 감정에 그치지 않고 언행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인 현상도피적인 심리가 표출되는 것이다. 두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전쟁이나 꼭 나버려라”라는 언행을 자주 사용하는 집단적 심리이다. 두번째 유형의 파괴적 현상탈출 심리는 실제 국외로 탈출하는 행위로 연결된다. 북한주민들이 국경을 넘는다는 것은 엄청난 모험임에도 많은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 식량을 구하러 월경을 한다.

집단별 및 지역별 변이

북한에서 체제에 대한 불만은 당연히 간부층보다는 노동자, 농민에게 더 많다. 또한 농민보다는 노동자에게 더 많다. 노동자들의 직업상 특성 때문이다.

농민들은 체제 실패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다. 못먹고 못사는 문제의 책임이 토지제도에 있다고 생각한다. 농민들은 누구나 농업협동화 방식으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개인농화해야 먹는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한다.

잠재된 불만이 가장 많은 집단이 정권초기부터 출신성분 때문에 북잡군중으로 분류된 집단이다. 월남자 가족, 6·25당시 치안대 가담자, 한국 귀순자 가족 등도 포함된다.

대학생들은 일반 사회집단보다는 김정일 정권에 더 비판적이라고 한다. 체계적인 교육을 통하여 현실을 분석하는 지적 능력이 더 발달

했기 때문이다.

간부층은 다른 어떤 계층보다 현체제에서 기득권을 향유하고 있기 때문에 체제에 대한 지지도가 높다. 저 체도가 유지되는 것은 절대적으로 간부층 때문이라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간부들 가운데서도 생각이 달라지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그 전에는 김정일이 죽으면 자신들도 죽는다고 생각했으나 이제는 아니라고 한다. 체제가 무너지면 죽는다는 인식은 옛말이라고 한다.

군부와 정보기관이 김정일 정권에서 가장 특혜를 받고 있는 집단이다. 다른 어떤 집단보다 김정일 정권에 가장 잘 통합되어 있다. 그러나, 군부인사들 중에도 김정일에 대한 충성은 존경심보다는 강제 때문이라고 보는 사람이 많다.

지역별 차이

체제에 대한 불만의 정도에 있어서 평양과 지방은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평양은 핵심계층과 간부들이 사는 곳이며, 배급도 상대적으로 양호하게 지급받고 있기 때문이다. 평양시민은 무엇보다도 이 체제에서 출세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주로 살고 있다. 한 귀순자는 평양에서 추방되어 김책에 와보니 일반주민들의 생각이 매우 비판적인데 놀랐다고 한다.

변화추세

북한 주민들의 사회심리는 80년대까지 지배적이던 순응형에서 이제는 심리적 이반형으로, 나아가서 탈출형으로 점차 변화하는 추세에

있다. 북한당국은 여론수렴 결과 식량난으로 소요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고 한다. 민중폭동을 우려하여 1995년 경에 외국에서 폭동 진압장비를 구입해서 사회안전성과 철도안전부에 보급했다고 한다.

8. 결론

북한주민들의 삶의 조건은 매우 열악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매슬로우가 정의한 인간의 욕구 5단계 중에서 북한주민은 어느 것도 제대로 충족하고 있는 욕구가 없다. 생리적인 욕구조차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의 욕구, 애정 및 소속감의 욕구, 자존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등 상위의 욕구를 위한 동기부여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1차욕구 해소에 고착되어 있다.

북한주민은 억압체제하에서 기본욕구 충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써 야기되는 불만을 표출하는 것조차 억압되고 있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감정의 막힘과 정체를 경험하고 있다. 경제난이 단순히 식량난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심리의 심부에서 고통을 주고, 인간적인 정서를 망가뜨리고 있는 것이다. 북한주민들은 대체로 전체주의 체제에서 경험하게 되는 성격변형이나 만성적인 불안감 같은 심리적 상태를 경험하고 있다.

유엔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을 마련하고자 「세계인권선언」(1945)과 「국제인권규약」(1966년 채택, 1976년 발효)을 마련하였다. A규약은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B규약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규정하였다. 지금까지 분석에 의거해 볼 때 북한주민은 국제인권규약의 A규약과 B규약이 규정한 권리중에서 만족스럽게 충족되고 있는 권리가 없다. 시민적·정치적인 권리는 권

력의 집중과 엄격한 사회통제하에 질식되었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는 식량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회적·문화적 권리를 논의할 여지가 없다.

무엇보다도 북한당국이 주민들의 식량난 개선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경제회생정책을 채택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그 과도기 동안 한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주민의 생존권 회복을 위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나아가 공개처형과 가족연좌제와 같은 비인도적 처벌방식을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국제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문제의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 요구된다.

- 목 차 -

I. 서 론	1
II. 개념틀	7
1. 욕구의 위계 및 동기유발의 개념	7
2. 욕구의 불만과 감정정체이론	9
가. 감정정체의 개념	9
나. 성격왜곡의 개념	11
3. 억압체제하에서의 자아방어기제 및 소극적 저항의 개념	12
가. 자아방어기제	12
나. 소극적 저항	15
III. 북한주민의 사회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요인 ..	18
1. 정치적 억압체제	18
가. 권력집중	18
나. 테러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체제	23
다. 사적 영역의 공간통제	25
라. 사적 영역의 시간통제	26
마. 감시	27
바. 사회관계의 원자화	28
사. 가족연좌제	30
2. 경제적 결핍	31
IV. 북한주민들의 결핍증후군	34

1. 욕구불만 및 박탈감	34
2. 공격적 행동	37
3. 절망	40
4. 고착	43
V. 사회심리적 병리현상	46
1. 감정정체	46
2. 성격변형	48
3. 불안	51
VI 북한주민의 자아방어기제의 발달	54
1. 자아억압	54
2. 불만대상 전가	55
3. 대체보상: 절도 및 물질주의	57
4. 이기주의	59
5. 범죄	61
6. 이중성 및 심리적 거부	63
VII. 사회적 성격의 유형	67
1. 순응형	67
2. 심리적 이반형	69
3. 파괴적 현상탈출 심리형	73
4. 집단별 및 지역별 변이	76
가. 노동자	76
나. 농민	77
다. 복잡군중	78

라. 대학생, 지식인	79
마. 간부	80
바. 군부 및 정보기관	81
5. 지역별 차이	83
6. 변화추세	84
VIII. 결 론	88
참고문헌	91

I. 서 론

소외의 개념은 원래 맑스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의 소외현상을 분석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인간자신의 노동의 산물이 값비싼 상품으로 변화하여 그에게서 외재하는 것으로 있는 한, 또한 종교, 시장, 화폐의 형태로 초월적 권위로서 자신과 대립되는 한, 인간은 항상 소외현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¹⁾

시이덴에 의해서 발전된 대중소외(mass alienation)의 개념은 시민들이 자기가 사는 체제의 의미, 규범, 가치 체계로부터 유리되거나 거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소외의 양상은 무력감(자신의 행위가 개인적·사회적 일에 있어서 아무 것도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느낌), 무의미감(무엇이 자신과 사회의 문제를 결정하는지 이해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다는 느낌), 무규범감(규범이 규제능력을 상실하고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수단이 필요하다는 느낌) 등이다. 이러한 양상들은 서로 연관되어 있으나 모두가 동시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²⁾

맑스의 자본주의체제 분석의 핵심의 하나는 자본주의체제가 인간을 착취, 억압, 소외시킨다는 사실이었으나, 이 문제의식은 역사적 경험으로 보아 현실 사회주의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중앙집권적 경제체제와 이에 상응하는 통치체제인 전체주의 체제가 인간을 소외시키고 억압하는 결과를 야기했다.

-
- 1) Shlomo Avineri, *The Social and Political Thought of Karl Marx*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8); 이홍구 역, 「칼 마르크스의 사회사상과 정치사상」 (서울: 가치사, 1983), pp. 133~68.
 - 2) Melvin Seeman, "On the Meaning of alien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24 (1959), pp. 783~791.

2 북한의 사회심리 연구

사회주의자들은 사회주의가 인간의 고용된 노동관계나 인간 소외로부터의 해방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겼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에서 소외의 문제는 부수적인 것으로 되며, 실제로 소외의 개념은 스탈린주의 수십년 동안 이론 논쟁에서 거의 거론되지 않았다. 그러나 역사적 경험은 전혀 상이한 실상을 보이고 있다. 사회주의 하에서 소외의 문제를 부수적인 것으로 제쳐둘 수 없으며, 오히려 소외의 문제가 사회주의의 중심문제였던 것이다.³⁾

스탈린주의는 이전 사회에서 존재하던 소외형태가 그대로 남아있으면서 강화된 것에 불과하다. 스탈린주의는 사회생활의 역사적 창조자인 인간을 신뢰하기보다는 공동사회의 발전과 형성에 있어서 국가에 보다 중대한 역할을 부여했다. 스탈린주의자들이 말하는 발전이라는 것은 자본주의의 정치·사회의 모든 불균형의 기본 원인인 임노동 관계를 소멸시키기는 커녕 오히려 모양만 다른 관계를 대체시킨데 불과하다. 그러므로 사회주의 국가에서 정치·경제적 소외가 소멸되지 않았고 가장 현실적이고 중요한 문제로 되었던 것이다.

개인숭배, 또는 다른 모든 소외된 형태는 상황의 우연한 산물이라기보다 오히려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을 국가에 종속시키는 것을 사회주의라고 믿는 한정된 사고구조의 표현에 불과하다. 이같은 개념은 일단 국유와 국가 중재가 사회에서 우세하게 되면 사회주의는 완결된다고 생각하는 스탈린주의자들의 이론과 실천에서 그 극에 달하였다.⁴⁾

이제까지의 역사과정이란 소외의 극복과정과 함께 새로운 형태의 창출과정이었다. 소련 및 동구사회주의의 붕괴는 무엇보다도 인간을

3) 뵤레드라크 브라니쯔끼, Predrag Vranicki, "사회주의와 소외의 문제", 에리히 프롬 편, 「사회주의 인간론」(사계절, 1982), pp. 258~259.

4) 위의 글, pp. 260~261.

소외시킨 체제의 특성에 근거한다고 볼 수 있다.

사실 인간소외의 현상은 사회주의 사회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를 분석하기 위하여 만든 맑스의 소외 개념이나 대중사회의 소외를 분석하기 위한 시이멘의 대중소외의 개념만으로는 사회주의 하에서의 인간의 심리현상을 설명하는데 충분하지 않다. 동독 정신과 의사였던 한스-요하임 마즈가 동독 시민의 결핍과 억압체제하에서 경험하게 된 심리현상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한 감정정체의 개념이 보다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⁵⁾ 마즈는 동독 사회주의의 집단억압체제를 파시즘의 폭력체제로 분석하고 이 체제가 표방하였던 규율, 질서, 자제, 적응, 순종 등의 집단적 가치들은 결국 개체의 자연스런 감정 및 욕구를 용납하지 않았다고 보고, 그 결과 동독인은 만성적 욕구억제로 인한 내면의 심적 기형화 상태인 감정정체 또는 감정막임, 감정차단, 감정소화불량 등의 상태를 경험했다고 보았다.⁶⁾

마즈에 의하면 어떤 사회이든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충족이 좌절되면 어떠한 이데올로기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 가장 기본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사회주의 체제의 오랜 정치사상교육도 무력해진다.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심리적 각성이 일어나며 그 불만족감을 표출하거나 불만족을 해소할 수 없을 때는 감정의 정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북한주민의 현실은 어떠한가? 지금까지 북한 사회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자유가 없고, 식량난에 굶주린다는 평가에서 끝난 수준이다. 그것이 주민들의 심리상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분석은

5) Hans-Joachim Maaz, *Der Gefühlsstau* (Argon Verlag, 1990); 송동준 역, 「사이코의 섬: 감정정체·분단체제의 사회심리」 (서울: 민음사, 1994).

6) 한스-요하임 마즈, 위의 책, p. 303.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다 진전된 문제의식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인간의 심리적 측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밝혀내는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북한주민들이 겪고 있는 정치적 억압과 경제적 결핍이 심리적 병리현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북한주민의 의식의 깊은 부분을 제대로 이해할 때 우리는 북한 사회에 대한 보다 입체적인 이해에 도달하게 되며, 통일의 문제에 보다 진지하게 접근하게 될 것이다.

또한 경제적 고난과 정치적 억압속에서 사는 사람들의 내면세계는 어떠하며 그것이 체제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 것은 향후 북한의 변화방향 예측과 관련하여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또한 이 연구는 북한의 엄혹한 통치체제와 경제난으로 인한 기본적 욕구충족의 실패가 북한주민들의 사회심리와 정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를 살펴봄으로써 북한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심리적 차원에서 인권의 실태를 심층 분석하고자 한다.

사회학에서 욕구의 불만족은 좌절감(frustration) 또는 박탈감(deprivation) 의식을 야기하며, 좌절감이나 박탈감을 느끼면 공격적 행동(aggression)을 행사하게 되고 집단행동화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개인차원의 스트레스나 불만은 사회운동의 주된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⁷⁾

일찍이 Gurr⁸⁾ 좌절감을 느끼면 적대감이 생기며, 좌절감과 공격

7) Joan Neff Gurney and Kathleen Tierney, Relative Deprivation and Social Movements: A Critical Look at Twenty Years of Theory and Research, *The Sociological Quarterly* 23 (Winter 1982), pp. 33~47; Harold Kerbo, Movements of Crisis and Movements of Affluence: A Critique of Deprivation and Resource Mobilization Theories,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26, no.4, December 1982, pp. 645~663.

8) T. R. Gurr, *Why Men Rebel*,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0).

적 행위간에는 비례관계에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상대적 박탈감 이론(relative deprivation theory)을 발전시켰다. 박탈감을 많이 느낄수록, 더 많은 좌절감과 분노가 쌓이며, 또한 더 많은 공격적 행위를 하게 된다고 보았다.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좌절감을 느끼게 되면, 그들은 폭동이나 저항에 집단적으로 가담하게 된다고 보았다.

이것은 미국과 같은 자유주의 사회에서 일반적인 행위양식이다. 그러나 북한과 같은 억압적인 사회에서는 좌절감(frustration)이나 박탈감(deprivation)이 바로 공격적 집단행위로 연결되지 않는다. 정권이 충분히 힘을 가지고 있어서 성난 시민들을 위협할 수 있으면 공격적 행위나 폭동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경우 좌절감을 느끼지만 그 좌절감이 집단행위로 분출되지 못할 경우 내면 심리세계에서 어떠한 현상이 발생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억압된 좌절감이 억압되어 없어지고 마는 지, 아니면 개인차원의 노이로제(신경증)로 발전하는지, 또 아니면 집단적인 노이로제를 낳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집단행동이 어려운 북한에서 욕구의 좌절이 공격적 행동이나 집단행동으로 발전되기 이전의 심리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심층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북한주민의 사회심리에 대해서는 주로 최근에 입국한 귀순자들에 대한 심층면접에서 얻은 자료에 의존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 인용된 귀순자들(모두 가명으로 인용)은 주로 작년 및 금년에 귀순한 사람들의 증언이다. 귀순자들의 증언은 객관적인 자료로서의 타당성 문제에 있어서 항상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 글에서는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몇가지 확인과정을 거쳤다. 첫째, 여러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일관되게 언급된 내용만을 발췌하여 사용하였다. 둘째, 연변 등의 제3지역에 거주하는 탈북자들의 증언도 참고하였다. 필자

는 한국에 귀순한 사람들의 증언의 객관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1998년 11월 연변지역을 방문하여 10여명의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면접조사한 결과 한국에 귀순한 사람들과는 별 차이가 없음을 확인한 바 있다.

셋째, 필자는 또한 귀순자들을 여러 가지 형태로 면접을 실시하여 보았다. 탈북자 부부와 필자의 부부가 주말에 시내 음식점에서 점심을 하면서 대화를 나누어보기도 하는 등 면접 장소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도 조사하여 보았으나 별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넷째, 지난 수년동안 귀순자들의 증언내용과 북한의 변화된 궤적을 비교해 볼 때 이 글에서 사용하는 방식의 면접이 객관성의 측면에서 큰 문제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최근의 귀순자들의 귀순동기가 정치적이기보다는 경제적인 측면이 많고 한국에서의 귀순자들의 거동이 자유로워서 북한에서 느낀 소감을 가감없이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 글은 또한 방북자들의 증언도 참조하였다. 북한주민의 사회심리라는 문제에 관해서는 귀순자들의 면접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 밖에 NGO 관계자 등 방북자들의 증언도 참고하였으나 그들의 증언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방북활동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직접 인용하는 것을 삼가하였다.

귀순자 증언을 분석함에 있어서 동독, 소련, 중국 등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 나타난 사회심리적 현상들과 부분적이거나 비교분석을 통하여 북한의 경우 사회심리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살펴볼 것이다.

II. 개념틀

1. 욕구의 위계 및 동기유발의 개념

욕구불만족의 사회적 영향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유용한 개념의 하나는 Maslow의 욕구의 위계 및 동기유발의 개념이다.⁹⁾ 매슬로우는 인간은 항상 무언가를 갈구하는 욕구의 동물이라고 보았다. 그런데 인간은 단순히 결핍을 메우고 좌절을 회피하기보다는 성장하기를 희구한다고 보았다는 점에서 프로이트 등의 심리학자와는 다른 학설을 주도하고 있다. 인간은 성장, 행복, 만족을 넘어서 자아실현에의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매슬로우는 인간의 욕구를 다섯가지로 나누고(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 및 애정의 욕구, 자존심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그 욕구는 위계질서를 이루고 있으며, 하위의 욕구가 충족되어야 상위의 욕구가 유발되며, 그 욕구충족을 위하여 행위가 발생한다고 보았다는 점에서 그의 이론은 동기유발이론이라고 불리기도 한다.¹⁰⁾ 위계의 욕

9) Abraham Maslow, *Motivation and Personality* (2nd ed.), (New York: Harper & Row, 1970); Maslow에 대한 해설서로는 Barbara Engler, *Personality Theories* (Boston: Houghton Mifflin co., 1991).

10) 생리적 욕구는 육체의 보존, 생물유기체의 생물학적 유지이다. 음식, 음료, 수면, 산소, 주거, 성에 대한 욕구 등을 포함한다. 안전의 욕구는 사회가 질서있고 안정되며 예측가능한 상태로 유지되기를 바라는 유기체의 욕구이다. 생명과 자기재산에 대한 보호 욕구를 포함한다. 정치적 자유의 욕구를 포함한다. 소속 및 애정의 욕구(사회적 욕구): 인간이 일단 심리적 욕구와 안전의 욕구가 충족되면 애정과 소속감의 욕구가 발생한다. 인간의 원초적 집단에서 준거집단간의 인간관계를 친밀하게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이다. 가족, 이웃, 또래집단, 전문결사체 등. 애정이라는 것은 생리적 관계나 또는 단순히 성적 관계가 아니라 건강하고 상호의존적인 신뢰의 관계에서 나온다. 자존(self-esteem)의 욕구는 두가지로

구 사다리를 높이 올라갈수록 심리적 건강과 자아실현의 정도는 더 높다. 인간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생존하고자 하면 이들 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이들 기본욕구는 긴장과 긴장해소의 리듬을 타며 새로운 상위욕구로 대체된다. 언제나 가장 긴급한 욕구가 전면으로 나와 충족되려 하며 그런 다음엔 다음 욕구에 자리를 양보하려 한다.

매슬로우는 다섯단계의 욕구를 크게 동기유발과 메타동기유발로 구분하였다. 동기유발은 결핍상태를 만족시킴으로써 긴장을 해소시키는 욕구를 의미한다. 이것을 결핍욕구(deficiency-needs 또는 D-need)라고 칭한다. 생리적 생존이나 안전을 위한 유기체적 욕구에 의하여 발생하며 인간으로 하여금 이러한 충동을 해소하기 위한 행위에 가담하도록 동기유발을 한다. 메타동기유발은 성장 욕구를 의미한다. 그것을 존재욕구(being-needs 또는 B-need)라고 칭하는데 유기체로 하여금 자아실현과 내적 잠재능력 실현에의 욕구로부터 나온다. 존재욕구는 결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아실현을 추구한다. 긴장해소가 아니라 인생을 충분히 실현하도록 자극하는 역할을 한다.

나눌 수 있는데 타인으로부터의 존경과 자존의 욕구이다. 자존심은 자신감, 신뢰, 성취감, 독립심, 자유의지 등을 포함한다. 타인으로부터의 존경은 인정, 수용, 사회적 지위, 감사받기 등이다. 인간이 이러한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낙심하거나, 열등감을 느낀다. 건강한 자존심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현실적인 평가이며, 타인으로부터의 응당한 존경에 기초한다. 하위의 욕구들이 충족되면 이제 자아실현(self-actualization)의 욕구가 발생한다. 자아실현의 욕구는 자신의 최고의 잠재력을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이다. 인간은 개인마다 상이한 잠재력과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자아실현의 기준은 개인별로 상이하다. 자기의 잠재력이나 재능을 충분히 개발 또는 발휘하지 못하면 인간은 불만족하거나 평안하지 못한다. 음악가는 음악을 해야 하며, 미술가는 그림을 그려야 하며 시인은 시를 써야 한다. 자아실현은 하위의 욕구들이 충분히 만족되어 인간의 기본적인 에너지가 다른 곳으로 분산되거나 정신이 빼앗기지 않아야 실현 가능하다.

D-needs는 B-needs에 선행한다. 결핍이 먼저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음 끼니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걱정하는 사람은 진리나 미와 같은 정신적 목표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 그래서 욕구는 위계를 이루고 있다. 하위에 있는 욕구가 먼저 만족되어야 상위의 욕구가 유발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기본적인 욕구가 좌절된 경우 어떠한 심리상태를 낳게 되는가? 매슬로우에 의하면 생리적 욕구가 가장 강력한 욕구로서 생리적 욕구가 장기간 충족되지 않으면 인간은 다른 욕구가 유발되지 않는다. 가령, 기아상태에 있는 사람은 음식을 구하는 일 외에는 다른 욕구가 발생하지 않는 법이다. 일단 생리적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어야 다른 욕구가 유발되는 것이다.

매슬로우의 분석에 의하면 기본욕구가 충족되면 인간은 행복하고 건강하며, 그렇지 못하면 노이로제(신경증: 불안신경증, 히스테리, 공포증, 강박신경증, 우울신경증, 신경쇠약, 격리신경증, 건강염려증 등)의 증후를 보인다는 것이다. 그것이 집단적인 차원으로 발생하게 될 경우 사회적 심리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2. 욕구의 불만과 감정정체이론

가. 감정정체의 개념

동독의 정신과 의사인 한스-요하임 마즈는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만성적 좌절이 야기한 감정정체에 대하여 자세한 심리적 분석을 제시했다. 그에 의하면 인간은 선천적인 기본욕구를 가지고 나온다. 그가 살아남거나 건강하고자 하려면 이들 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그는 매슬로우의 욕구위계이론과 맥을 같이 하고 있

지만, 욕구가 충족되지 않고 억압되었을 경우의 심리적 영향을 더 자세히 분석하였다는 측면에서 북한의 사회심리현상을 설명하는데 보다 적합한 개념을 제시한다.

한스-요하임 마즈에 의하면 기본욕구 충족의 양과 질은 인간이 근본적으로 건전한 발전을 하느냐 아니면 병적인 발전을 하느냐를 결정하는 결정적 요인이다. 욕구를 계속 충분히 충족시킬 때만이 인간에게는 규칙적인 긴장해소가 마련되고 이와 더불어 확신, 신뢰, 자기 가치, 믿음, 희망에 대한 근본경험이 가능하다. 삶과 자연에 대해 공동체적 공감, 존경심, 관용을 가지게 된다.¹¹⁾

이와 반대로 자연스런 제반 기본욕구가 불만족할 때 긴장, 노여움, 불만, 불안의 상태가 야기된다. 한스-요하임 마즈는 이 상태를 결핍 증후군으로 정의하였다. 이 상태는 이미 그 자체만으로도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무거운 부담이 된다. 정상적으로 인간은 결핍상황에 대해 감정적 반응을 하며, 이러한 감정표출을 통해 심적 부담을 덜게 된다.

그러나 그와 같은 반응의 감정까지도 금지될 경우 감정정체(gefühlsstau) 또는 감정막힘이 일어나게 된다. 만성적 결핍상황은 결국 불안정, 열등감, 불신, 절망, 무의미 등을 경험케 하여 이것이 기본경험이 된다. 감정정체는 만성적 긴장상태를 낳는데 이 상태의 원인은 대개의 경우 의식되지 않고 있지만 이 상황은 끊임없이 긴장해소 반응을 위한 밸브를 찾고 이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¹²⁾

11) 한스 요하임 마즈, 「사이코의 섬: 감정정체·분단체제의 사회심리」(민음사, 1990), p. 70.

12) 위의 책, p. 71.

나. 성격왜곡의 개념

마즈는 욕구충족이 만성적으로 제약되면 곧 성격왜곡이 일어난다고 보았다. 성격왜곡은 언제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왜곡현상이 보편화되어 정상적으로 생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마즈에 의하면 사회주의체제에서는 오직 이 성격왜곡을 통해서만 그나마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한다. ‘건전한 태도’는 필연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건전함이란 솔직성, 성실성, 자립성, 비판적 대결능력, 자신의 입장을 갖고 창조적 활동을 하려는 용기 등을 포함한다. 사회주의에서는 이것이 파괴주의적으로 간주되었고 각 개체로부터 강력히 제거되었던 특성들이다. 사회주의체제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권위주의적 구조가 각 개체들의 내면에 닳을 내릴 수 있어야 했던 것이다. 그것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권력을 행사함으로써 나타나는 적극적 형식으로든지 아니면 굴종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의 권력행사를 감수함으로써 나타나는 수동적 형식으로 가능했다는 것이다.¹³⁾

마즈에 의하면 성격왜곡은 이미 출생과 더불어 시작되고 교육과 사회적 상황을 통해 강화되고 만성화되며 그러한 상태의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한 다양한 심적 거부반응으로 인해 결국은 무의식 속으로 밀려나게 된다. 이 피해는 결국 병적 상태로 나타날 수 있으나 이 피해는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도덕적 의무로 간주되어 보편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규범 및 규칙에 묻혀 있는 경우가 더 많다. 이것이 병적인 것과 건강한 것 간에 경계선을 분명히 그을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소외된 사람은 소외된 환경에서만 어색하지 않고 기분좋은

13) 위의 책, p. 72.

감을 가질 수 있으나 보다 자유스럽고 자연스런 상황에서는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자신들이 처한 소외, 차단, 분열과 마주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형화된 병원적(病源的)인 상황이 고착화되는 것이다.¹⁴⁾

3. 억압체제하에서의 자아방어기제 및 소극적 저항의 개념

어느 사회든지 인간은 사회적 억압에 수동적으로 당하고만 있는 것은 아니다. 존 듀이의 실용주의(pragmatism)의 전통을 이어받아 사유능력(mind)의 개념을 발전시킨 미드,¹⁵⁾ 블루머¹⁶⁾ 등의 사회학자에 의하면 인간은 능동적인 사유능력과 상황을 극복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인간은 단순히 사회의 수인(囚人)이 아니라 사회를 구성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다. 정치적 체제의 성격에 따라 사회적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사회주의 체제라고 하여 인간은 인간의 본질인 사유능력(mind)이 없는 것은 아니다.

가. 자아방어기제

한스-요하임 마즈는 억압체제하에서 가장 보편적인 자아방어기제는 자신에 대한 억압이라고 보았으나, 보다 다양한 자아방어기제의 개념을 프로이트에게서 발견할 수 있다. 성적 억압이 심했던 빅토리아시대에서 신경증을 분석했던 프로이트가 억압체제하에서 심리적

14) 위의 책, p. 83.

15) George H. Mead, *Mind, Self and Societ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7)

16) Berbert Blumer, *Symbolic Interactionism: Perspective and Method* (New Jersey: Prentice-Hall, 1969).

자아방어기제의 개념을 발견해 냈던 점을 참고하여 정치적 억압이 격심한 북한사회에서 북한주민들은 어떠한 자아방어기제를 발전시켰는지에 대한 개념을 시사받을 수 있다. 북한과 같은 정치적 억압이 발달한 사회에서 욕구좌절은 어떻게 관리되며 그것은 어떠한 사회적·정치적 영향을 야기하는가?

욕구불만으로 스트레스가 발생했을 때 인간의 반응을 잘 분석한 프로이트의 자아방어기제 개념을 살펴보자. 프로이트는 자아의 속성을 id, ego, super-ego로 나누었다. 프로이트에게 세상이란 아나키(그리스 말로 부족하다는 뜻)로서, 인간의 모든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너무 부족하다는 뜻이다. id의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ego는 통제할 수 없는 과도한 자극에 압도당하여 스트레스로 충만하게 된다.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하여 ego는 방어기제를 개발시킨다. 방어기제는 스트레스를 피하고 의식이 그것을 의식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프로이트에 의하면, 방어기제는 사회에 대한 부적응이 아니라 그것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적응의 방식이다. 긴장을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이 없으면 인간은 압도당하여 마비될 수 있다. 프로이트는 가장 자주 사용되는 방어기제로서 억압을 들었다. 자아억압(repression)은 소원이나 욕구가 의식적으로 표현되는 것을 억압하는 것이다. 타인이나 사회에 대한 깊은 적대감이 의식으로 떠오르는 것을 기피하고 억제하는 것이다. 생각 자체를 떨어내어 버리는 것이다. 그 까닭은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 위험하거나 손해가 되기 때문이다.

그 밖의 방어기제로서는 전가(projection), 반대행동(reaction formation), 퇴행(regression), 합리화(rationalization), 동일시(identification), 대체(displacement), 승화(sublimation)이다.¹⁷⁾

17) 불만의 대상도착(Projection): 무의식적 충동이나, 태도, 감정을 타인에게로 발산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나 대상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있을

프로이트는 그의 퍼스널리티 이론을 극단적 억압으로 특징지어지는 시대의 퍼스널리티를 분석한 것이다. 빅토리아 시대는 성적 충동의 표현에 있어서 엄격한 타부가 있었다. 프로이트는 그의 많은 환자들이 성에 대한 엄한 수피에고의 결과로 신경증이 발병된 사례들이라고 인식했다. 프로이트의 이러한 논리를 원용하여 극단적 억압사회인 북한을 이해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다.

경우 그 적대감을 다른 사람이나 외부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다. 그 적대감의 근원을 다른 사람이나 외부의 요인으로 돌림으로써 적대감을 다루기 용이하게 하며, 또한 간접적으로 충동을 표현하는 것이다. 반대 행동(Reaction formation): 충동을 반대로 표현하는 방법이다. 가령, 적대감을 우정의 형태로 표현하는 것이다. 때로는 역반응이 과장됨으로써 감정의 진위에 대한 의문을 낳기도 한다. 퇴행(Regression): 스트레스가 덜하고 책임이 덜한 이전의 성장 단계로 되돌아가는 행위이다. 가령, 학교가기 싫은 아동이 잠자리에 오줌을 싸는 행위 등이다. 합리화(Rationalization): 스트레스나 고통을 느끼지 않기 위하여 분석적·이론적 방법을 동원하여 잘못된 추론을 함으로써 감정이나 충동을 관리하는 방법이다. 전형적인 예는 이숙 우화에서 여우가 나무에 높이 달린 포도를 딸 수 없자 시어서 못먹는 것이라고 결론짓는 행위이다. 동일시(Identification): 행위를 타인의 역할모형을 따라 함으로써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 육구충족에 더 성공적인 인물의 특징을 택함으로써 우리도 그 사람처럼 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증오나 공포의 대상이 되는 권위있는 인물과 동일시 함으로써 처벌을 피할 수도 있는 것이다. 어머니나 아버지의 역할 모형을 모방하는 것이 그 예이다. 대체(Displacement): 육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충동을 다른 대상으로 교체하는 것이다. 육을 먹은 아이가 동생이나 개를 건어 차는 행위로서 희생양을 만드는 것이다. 대체된 대상물은 원래의 대상물과 같은 정도의 육구충족은 되지 않는 법이다. 대체는 완전한 만족은 없으며 긴장이 축적될 수 있는 것이다. 승화(Sublimation): 허용되지 않는 충동을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방식으로 배출하는 것이다. 충동을 다른 대상을 찾아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충동 그 자체를 관리하는 것이다. 성적 호기심을 지적 연구로 돌리거나 성적 행위를 운동으로 돌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 프로이트는 승화야말로 문명을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나. 소극적 저항

자아방어의 또 다른 형태는 자신을 억압하고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않는 체제에 통합하여 괴로워하기보다는 체제로부터 거리를 유지함으로써 감정적 자유를 느끼는 것이다.

안키 통¹⁸⁾은 사회주의 체제의 능력이 퇴화되면서 시민들의 반응은 세가지로 나타났다고 보았다. 조직을 떠나든지(exit), 불만을 표출하든지(voice), 아니면 조직에 남아있는 경우(loyalty)이다. 정치적으로 억압적인 체제에서 극소수만이 탈주, 이민 등 경성탈출(hard exit)을 택했고, 불만을 표출(voice)하는 것은 극히 제한되었다. 절대다수는 체제에 머물렀다. 충성때문이라기보다는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공식체제로부터 연성이탈(soft exit), 또는 어떤 학자들의 표현에 의하면 제2사회라고 하는 것을 선택했다. 고의적으로 일을 잘못하기, 결근, 피병않기 등이 공식 임무로부터 회피하는 흔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다.¹⁹⁾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를 관찰한 하벨,²⁰⁾ 쉴라펜토크,²¹⁾ 큐란²²⁾ 같은 사회과학자들은 이를 표리부동 또는 행위양식의 이중성이라는 말로 표현하였다.²³⁾ 제임스 스카트는 약자의 무기, 일상생활형의 저항, 저항의 기술이라는 개념을 만들기도 하

18) Yanqi Tong, "Mass Alienation Under State Socialism and After," *Communist and Post-Communist Studies*, Vol. 28, No. 2, pp. 215~237.

19) Tong, op.cit., p. 219.

20) Vaclav Havel, et al., *The Power of the Powerless: Citizens against the State in Central-Eastern Europe* (New York: Sharpe), pp. 24~27.

21) Vladimir Shlapentokh, "Two levels of Public Opinion," *Public Opinion Quarterly*, vol. 49 (1985), p. 448.

22) Timur Kuran, "Now Out of Never: The Element of Surprise in the East European Revolution of 1989," *World Politics*, vol. 44, no. 1, p. 13.

23) 자세한 설명은 서재진, 「또 하나의 북한사회: 사회구조와 사회의식의 이중성 연구」(서울: 나남출판, 1995), 제2장 참조.

였다.²⁴⁾

사회주의 체제는 이중의 도덕적 기준, 또는 제2의 사회의식, 이중적 사고, 분열된 인격, 또는 이중적 도덕을 등으로 특징지어진다. 이 모든 용어는 같은 현상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사람들이 공적 생활에서는 공식규범에 순종하지만, 개인적 일에서는 전혀 다른 자기방식의 도덕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중적 도덕의 잣대를 가지고 있는 것은 그 만큼 공식세계에서 광범위한 대중들이 소외를 느끼고 있다는 예가 되는 것이다.

공식체제가 아닌 자기만의 가치를 가지고 생활함으로써 공식체제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들은 자아방어기제의 일환으로 발전된 사회주의 사회의 심리적 이중성으로 주목할 만한 사회심리적 현상이다.

이러한 심리적 이반의 상태에서는 인민들은 점차적으로 공식 가치에 대하여 무관심해졌고, 사생활로 은둔했으며, 알콜에 탐닉하기도 하고, 물질과 개인적 관심에 몰두하기도 하고, 사회적 규범은 무시하며, 체제의 번두리에서 사는 방식을 발전시켰으며, 비합법적인 경제행위에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연성이탈(soft exit)이 사회주의적인 자아방어기제의 유형들이다.

또한 노동자들은 관리자들에 대하여, 피지배자는 지배자에 대하여, 대중들은 정권에 대하여 “우리” 대 “그놈들” 이라는 이분법적인 계급의식을 발달시켰다. 이러한 이분법적인 의식의 근거에 있는 의식은 거부 심리이다. 체제 지배자와의 통합이 아니라 분리 독립이다.²⁵⁾

24) James Scott, *Weapon of the Weak: Everyday Forms of Resistanc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5); James Scott, *Domination and the Arts of Resistance: Hidden Transcript*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0).

25) Tong, op. cit., p. 218.

그러나 이 상태에서 사회주의 이념에 대한 대안적 이념을 찾는다는 것은 이 단계에서 일반대중의 관심이 아니다. 그래서 가장 목소리 큰 저항자라 하더라도 비판은 공식 정치 용어를 사용하며 그 내용은 더 나은 진정한 사회주의를 요구하는 것이다. 사회주의 자체에 대한 비판적인 언어는 위험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본심은 공적 권위에 대한 무시와 냉소이다.

이러한 개념들을 종합해 볼 때 사회주의체제에서 개인들은 억압적인 체제로부터의 정치적 처벌을 피하고 개인주의적 이익을 실현하는 이중적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적 세계에서는 공적 원칙을 따르지만 사적 세계에서는 개인주의를 지향하며, 공적 세계에서는 복종하지만 사적 세계에서는 비판한다는 면중복배(面從腹背)의 현상인 것이다. 사회주의에 특징적인 개인주의적 합리성의 개념으로 특징지을 수 있을 것이다.²⁶⁾

26) John Harsanyi, "Advances in Understanding Rational Behavior," in Jon Elster ed., *Rational Choice*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1986).

III. 북한주민의 사회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요인

북한주민들의 사회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중에서 정치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을 중심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정치적·경제적 실태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북한체제의 특징중에서 매슬로우의 5단계의 욕구를 침해하는 메카니즘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정치적 억압체제

가. 권력집중

레닌의 유산중에서 사회주의 체제의 억압적인 측면 두가지는 권력의 집중과 테러이다. 사회주의 체제에서 권력집중이 제도화하게 된 것은 혁명과정에 있어서 당의 전위적 역할에 관한 레닌의 이론과 실천에서 비롯되었다. 당의 전위적 역할에 대한 레닌의 입장은 당시의 경제주의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정립되었다. 경제주의자들은 사적 유물론을 해석함에 있어서 노동자의 혁명적 의식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적 조건이 성숙해야 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레닌은 노동자를 혁명적으로 의식화시키는 것은 사회적·경제적 조건이 아니라 당의 전위적 역할이라고 보았다.²⁷⁾

27) Ralf Miliband, *Class Power and State Power* (New York: Verso, 1983), pp. 161~62; Leszek Kolakowski, *Main Currents of Marxism, 2-The Golden Ag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78), pp. 386, 396.

레닌은 자발적인 노동계급운동은 자연발생적인 상태로 방치되면 결국은 부르조아 이데올로기에 봉사하게 되며 노동조합은 부르조아 지가 노동자들을 이데올로기적으로 노예화하는 수단이라고 보았다.²⁸⁾ 노동자들은 노동력을 더 좋은 조건에 팔기 위하여 투쟁을 하기는 하겠지만 노동자들의 운동은 어디까지나 부르조아 노동운동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회주의적 혁명의식은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²⁹⁾

레닌은 프롤레타리아 스스로는 사회주의적 의식을 발전시킬 수 없기 때문에 혁명을 향한 의지는 단순히 사회적·경제적 조건에 의하여 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조직화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사회적 조건이 혁명의 가능성은 만들겠지만 그 가능성을 현실화하는 것은 조직화된 당이며 당만이 혁명적 의식의 원천이며 주도자일 수 있다는 것이다.³⁰⁾

레닌은 당이 전위대, 조직자, 지도자, 이론가여야 하며 그러한 역할 없이는 노동자들이 부르조아사회의 지평을 넘을 수 없다고 보았다. 오직 당만이 사회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은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독점적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다.³¹⁾ 당의 해체모니에 대한 레닌의 이러한 사상은 자연히 사회주의 사회에서 당의 지도적 역할 사상으로 발전되었다. 당은 대중보다는 대중의 이익, 요구, 욕구에 대하여 더 잘 알며 인민대중은 너무 무식하기 때문에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며 당만이 과학적 지식에 기초

28) V. I. Lenin, *State and Revolution*, Lenin's collected Works, vol. 5, p. 384; Kolakowski, *Main Currents of Marxism, 2-The Golden Ag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78), p. 387.

29) Leszek Kolakowski, *Main Currents of Marxism, 2-The Golden Age*, p. 389.

30) Ibid., pp. 397~98.

31) Ibid., pp. 387, 391.

하여 잘 헤아릴 수 있다는 것이다.³²⁾ 이러한 점에서 레닌은 당 주도의 사회주의를 과학적 사회주의라고 부르고, 유토피아 사회주의 및 자생적인 노동자운동과 구별하였다.

레닌은 ‘프로레타리아트는 그대로 방치해두면 언제까지나 타락한 존재로 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는 점에서 그의 전략은 소수 정예주의이며 엘리트주의자였다.³³⁾ 당이 계급을 대신하고 엘리트주의적 당-국가가 프로레타리아 독재에 의해 상징되었던 프로레타리아트의 선도적 지위를 대신했다. 레닌의 사상에는 확실히 인민대중이 자율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간은 처음부터 없었다. 이것은 결국 노동계급과 사회전체에 대한 당의 독재에 대한 이데올로기적인 기초가 되었다.

북한의 정치체제도 다른 사회주의와 마찬가지로 모든 정치적 권력이 관료화된 전위당인 노동당에 집중되어 사회의 전 구조가 수직적 통제하에 들어있다. 모든 권력이 1인과 일당에 집중되었다. 옥상옥을 이룬 관료기구에는 모든 시민에 대하여 생사여탈권을 갖는 권력을 가지게 되었다. 당의 관료, 국가기구의 관료들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게 되었다.

북한의 권력집중은 다른 사회주의보다 더욱 심한 편이다. 노동계급을 선도하는 당의 전위를 넘어서 당을 영도하는 수령의 전위 개념으로 한층 더 발전시켰다. 북한은 당의 독재가 아니라 수령의 독재인 것이다. 북한의 주체사상총서 중의 하나인 「영도체계」라는 책은 “광범한 균중을 묶어세워 하나의 목적실현으로 조직동원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하나의 영도자, 수령을 내세우고 혁명과 건설 전반에

32) Ibid., p. 392.

33) Amos Perlmutter, *Modern Authoritarianism: A Comparative Institutional Analysis*, 김문조·임현진 역, 「현대국가와 권위주의」(정음사, 1986), p. 102.

대한 그의 유일적 영도를 확고히 보장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³⁴⁾

북한에서 수령의 유일적 영도자의 개념은 신의 경지로까지 절대화 되었으며³⁵⁾ 절대자에 대한 복종은 종교적 차원으로까지 발전되었다. 1974년에 발표한 ‘유일체제확립 10대원칙’은 북한판 10계명으로서 북한주민의 일상생활의 정치적 계율이 되고 있다. 10대원칙의 내용은 김일성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기 위하여 목숨바쳐 투쟁해야 하며, 김일성의 권위를 절대화해야 하며, 김일성의 교시를 신조화해야 하며, 김일성 교시의 집행에서 무조건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등의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10번째 계율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하며 완성하여 나가야 한다”는 것으로서 10계명은 김정일에게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령에 대한 절대화는 곧 전 주민의 전체주의적 통합을 강요하기에 이르렀다. 수령, 당, 대중은 삼위일체로서 하나의 사회적 유기체를

34) 사회과학출판사 편, 『영도체계』, 주체사상총서 9 (서울: 지평, 1989), p. 49.

35) 북한은 지난 1987년 경부터 김일성의 항일빨치산 활동을 과장하기 위해 조작하고 있는 구호나무에 “김일성령수는 조선의 하늘님, 이천만 일심으로 김대장 받들자,” “김일성령수는 만백성의 하늘님 …” 등의 구호가 새겨져 있다고 소개하여 마치 김일성이 해방 전부터 ‘하느님’이라고 불려졌던 것처럼 선전하였다. 북한의 대중잡지 『천리마』에 또 다시 김일성을 ‘하느님’이라고 언급하였다. “김일성수령은 조선의 하느님”이라는 제목의 이 글의 요지는 예로부터 인류는 불행과 고통에서 자기들을 구원해주고 지상천국을 가져다 주는 은인을 하느님이라고 일컬어 왔는데 김일성이 북한주민에게 바로 그와 같은 존재라는 것이다. 이 글에 의하면 “수천년 세월 무지와 몽매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조선인민들도 일제에게 빼앗긴 나라를 다시 찾아주고 자기들을 망국의 운명에서 구원해줄 유일한 구원자는 ‘하느님’ 밖에 없다고 믿고 이를 숭배하고 빌고 또 빌었으나 ‘하느님’은 독립을 가져다주지 못했으며 도탄에 빠진 나라와 민족을 구원해 줄 영도자를 목타게 기다린 이천만 겨레앞에 나타난 이는 바로 김일성장군이였다”고 썼다 (『내외통신, 제7956호, 1992.7.29』).

형성한다는 이론으로 발전시켰다. 생물유기체의 개념을 사회유기체의 개념으로 발전시켰다.

수령에 대한 절대적 복종을 강요하는 북한체제의 특성에 대하여 최근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는 현대판 노예제 사회라고 비판하였다.³⁶⁾ 북한은 내부의 노예적 상태를 외부에 의한 노예의 위협으로 상쇄시키고자 한다. 이러한 측면은 북한 사상교양의 내용에서 잘 드러난다. 북한의 최근 사상교양의 핵심은 “미국에 점령되어 노예로 살기보다 자주적으로 살아야 한다. 사회주의 놓치면 미국의 식민지 노예가 된다, 그렇게 살겠느냐 아니면 헐벗더라도 국방력 강화하여 자주 독립을 유지하겠느냐?”, “통일되면 노예가 된다, 남한의 지주·자본가에게 먹히게 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³⁷⁾ 외부 적의 노예에 비하면 내부 수령의 노예는 정당화된다는 논리이다.

수령에의 강력한 권력집중은 하위 권력 관리자에게도 과도한 권위주의를 수반한다. 북한당국은 간부들의 세도주의와 권위주의를 조장하거나 묵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들을 강력하게 통제하기 위하여 권한을 주는 셈이다. 결국 주민들에게는 간부들의 권위주의, 세도주의가 억압의 기제로 작용한다. 간부들의 인민대중에 대한 태도가 매우 권위주의적이라는 것은 귀순자들의 증언을 통하여 잘 알려져 있다. 가령, ‘동무’는 규정어이지만 일상적으로 욕지꺼리를 많이 사용한다고 한다. 간부들이 아랫사람들에게 ‘이○○’, ‘저○○’라는 속어를 예사로 사용한다고 한다. 간부들은 자기 비위에 조금만 거슬리면 그런 말을 남발한다고 한다.³⁸⁾ 북한사회에서 간부와 인민대중간의 상호작용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측면이다.

36) 「조선일보」, 1999.12.1.

37) 김철대 및 이수동 증언.

38) 서철영(25세, 청진철도국 남양분국 세천역 신호원, 1999.8.14 귀순) 증언.

나. 테러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체제

레닌주의의 또하나의 유산은 사회주의 국가들이 테러에 과도하게 의존했다는 점이다. 사회주의 체제의 한 특징은 모든 현실적 가상의 적에 대하여 프로레타리아 독재의 이름으로 조직적 폭력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문제 등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적 수단으로 테러를 사용한다.³⁹⁾

10월혁명으로 권력을 장악한 뒤 레닌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규모의 폭력과 테러를 사용하겠다고 주창하였다. 그는 「국가와 혁명」이라는 저서에서 민주주의란 한 계급의 다른 계급에 대한 폭력을 체계적으로 사용하는 조직이라는 말로 표현했다. *Collected Works*라는 저서에서는 민주주의라는 것은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레닌은 집권하자마자 사회전체를 테러화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사소한 관료적 방해에 대항해서도 폭력을 무차별적으로 사용했다. 1918년 1월에 내린 한 명령에서 레닌은 볼셰비키 통치에 반대하는 자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정책을 발표하면서 국가 기관들로 하여금 러시아땅에 있는 모든 해로운 ‘벌레’들을 모조리 소탕할 것을 명령했다. 또한 한 지방 당 간부에게 무자비한 집단 테러를 사용할 것을 지시했다. 집단테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행정적 수단으로 되었다. 게으른 노동자들에게 대해서도 10명 중 한명은 현장에서 총살하도록 지시했다. 규칙을 안 지키는 노동자에 대해서도 그런 규칙 위반자는 총살되어야 한다고 지시했다.⁴⁰⁾ 레닌의

39) Zbigniew Brzezinski, *The Grand Failure: The Birth and the Death of Communism in the Twentieth Century*, (Macmillan Publishing Co., 1989), p. 19.

40) *Ibid.*, p. 19-20.

이러한 정책은 스탈린체제를 탄생시킨 온상이 되었다.

북한도 레닌주의의 전통을 고스란히 물려받았다. 데러는 자주 사용되는 통치방식의 하나이다. 특히 90년대 들어서 자주 사용하고 있는 공개처형이 그 한 사례이다. 김정일 지시에 의해 “사회질서 문란행위를 엄벌에 처하라”는 지시가 있는 이후 공개처형이 각급 지역별로 회수가 할당되어 실시되었다고 한다. 90년대에 귀순한 대부분의 귀순자들은 직접 1~2번씩 공개처형을 목격했다고 한다. 가령, 서철영은 함경도 세천에서 2명이 총살당하는 것을 목격했다. 94년 봄이었는데 그중 1명은 자기와 같이 근무하던 동기동창(강정욱)이며, 다른 1명은 자기의 1년선배인 학보탄광 노동자라고 한다. 그들은 다른 3인과 같이 군인으로 가장하고 양곡 200kg을 훔쳤다가 발각되었다고 한다. 그중 주모자는 농장 기사장의 아들로서 15년형을 판결받고 1년후 병보석되었지만, 출신성분이 안좋은 2명만 처형을 당했다고 한다. 공개처형시에 세천주민들에게 순회방송차로 공개재판 일정을 홍보하였다고 한다.⁴¹⁾

간부 출신의 김철대도 비슷한 증언을 하였다. 그는 흉년들면 도적이 성하고, 도적이 성하면 법이 많아진다고 진단하면서 북한에서 즉결 총살이 남발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1996년 김책시 장마당 옆 강변에서 시범 사례로 3인에 대한 공개처형을 실시했다고 한다. 2인은 공장의 동을 뜯어내어 팔았으며 1인은 장마당에서 강도질한 혐의라고 한다.⁴²⁾

북한은 1999년 소위 ‘황색바람’을 차단할 목적으로 중국과의 접경

41) 서철영(이하 모든 귀순자는 가명 25세, 청진철도국 남양분국 세천역 신호원, 1999.8.14 귀순) 증언.

42) 김철대 (47세, 1997.8 탈북, 1999.1 귀순, 과학원 수리공학연구소 연구사) 증언.

지역에서 6월과 7월 사이 강제송환된 탈북주민과 비리연류자 30명을 총살했다고 한다. 총살당한 사람가운데는 함경북도 도검찰소장 심○○, 양강도 산업관리소장 김○○, 혜산시 신발공장 당책임비서 등 고위관리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은 업무상 비리에 연루되어 처형되었다고 한다.⁴³⁾

공개처형 뿐 아니라 범법자에 대한 처벌이 매우 가혹하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귀순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김정일은 자기말 안들으면 짐승처럼 죽인다는 말을 자주 하고 있다. 수많은 사람이 굶어서 죽는 판에 자기 자리 하나 지키자고 저렇게 정치한다고 한다. 경제난 속에서도 체제가 유지되는 이유에 대하여 많은 귀순자들은 사람을 사정없이 죽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⁴⁴⁾

북한에서 이처럼 공개처형과 같은 폭력에 의존하여 정치를 하는 것은 공포심을 유발시켜 주민들을 심리적으로 억압시키고, 체제에 대한 불만과 이탈의 의지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사적 영역의 공간통제

북한에서는 권력이 당, 국가, 수령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자율적인 시민사회의 영역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각급 행정기관은 물론이고, 각급 직장과 학교, 가정 등 주민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모든 사회영역에 당조직이 편성되어 있다.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구분이 없는 만큼 정치적·경제적으로 사생활에 공적 침투가 체계적으

43) 「연합뉴스」, 1999.11.25

44) 정석영 (23세, 함북도 인민학교 교원, 1999.1 귀순), 서철영 (25세, 청진철도국 남양분국 세천역 신호원, 1999.8.14 귀순) 등 다수 증언.

로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주의에는 시민사회가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식제도에서 정체감, 의미, 활력을 상실했을 경우 보상할 수 있는 대안적 근원이 없으며, 동시에 개인적 좌절감의 제도적 방출구가 없다. 시민사회가 잘 발달해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는 사람들이 정부로부터 소외감을 느낄 때에는 여러 가지 다른 사회조직으로부터 정체감을 발견할 수 있으며 이로써 무력감과 무의미감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다. 대조적으로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가족과 국가사이에 자율적 사회조직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대안적인 정체감을 찾을 길이 없다. 한 폴란드 학자는 사회주의 국가를 가족연방이라고 꼬집었다. 그것은 사회에 가족 이외의 자율적 시민사회조직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⁴⁵⁾

이 때문에 개인이 결정하거나 자율적으로 행할 수 있는 영역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 개인은 일상생활에서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 사적 영역의 시간통제

북한사회에서 자율적 시민사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사적 영역의 공간적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다. 북한에서 사적 영역에 대한 또 하나의 통제방식은 사적 영역의 시간적 통제이다. 개인의 자유로운 시간을 제한함으로써 공식적 업무외에 딴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한다고 한다. 시간적 여유를 주면 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유시간을 주지 말라고 지시가 내려온다고 한다. 생산시간

45) Yanqi Tong, 앞의 글, p. 220.

이후에는 학습과 조직생활이 계속되는 것이다. 한 귀순자의 증언에 의하면 “아침부터 밤까지 북아 덴다”고 한다. 심지어 명절에도 당중앙위원회 비서국에서 지시문을 하달하여 “이 명절을 혁명적 경각심으로 긴장하고 지내자”고 지시하며 특별경계주간으로 설정한다고 한다. 2·16, 4·15 등의 명절에는 이틀을 쉬는데 하루는 직장에 나가서 집체적으로 휴식하며, 하루는 집에서 자을 휴식을 한다고 한다. 자을 휴식날에는 밀린 가사일을 하고 나무하고, 구멍탄 찍기 등으로 쉴 틈이 없다고 한다. 명절을 지난 후에는 명절을 어떻게 보냈는지 조직에게 보고하게 한다. 특히 여러명이 모여 술마시는 것을 경계하며 인민반장이 아무 집이나 문두드리고 들여다 본다고 한다. 이러한 시간적 통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생각을 가질 여유가 없다고 한다. 90년대 들어서 이런 식으로 통제가 심화되었다고 한다.⁴⁶⁾

마. 감시

북한체제에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억압적인 제도는 암행 감시망을 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회안전성, 국가안전보위부, 당 조직에서 정보원을 각 직장, 각 조직에 운용하고 있다. 정보원은 기관에서 파견된 기관원이 아니라 일반주민중에서 출신성분이 좋은 사람들 중에서 비밀리에 임무를 부여하여 정기적으로 주민동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누가 정보원인지 아무도 모르는 셈이다. 귀순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5명 중 1명이 정보원이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6명중, 또는 10명중 1명이 정보원이라는 차이는 있지만 주위사람을 항상 정보원으로 가정하고 행동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임에는 분명

46) 김철대 (47세, 1997.8 탈북, 1999.1 귀순, 과학원 수리공학연구소 연구사) 증언.

하다. 북한주민들은 “자기 등짝도 못믿는다”는 말을 흔히 한다고 한다. 또한 방에 혼자 앉아서도 김정일에 대한 불평을 하지 못할 정도로 심한 감시의 위협을 느낀다고 한다. 부모들이 외출하는 자식들에게 자주 타이르는 말의 하나는 말조심하라는 것이다.

주로 언동에 대한 감시이다. 실제로 말을 잘못하여 고발당한 사람들이 많다. 남한에 귀순한 사람들 중에는 중류층으로 살고 있으면서도 말을 잘못하여 당국의 숙청조치로 지방으로 추방되었다가 남한으로 탈출한 경우도 있고, 보위부의 출두 통지를 받고 남한으로 탈출한 경우도 있다.

김철대는 부인의 정치적 발언 잘못으로 평양에서 김책시로 강제 추방당했다가 남한으로 귀순한 사례이다. 임복신은 본인이 술자리에서 발언을 잘못하여 고발되었다가 보위부에 출두하지 않고 남한으로 귀순한 사례이다.

바. 사회관계의 원자화

매슬로우의 인간욕구의 위계에서 세 번째 단계로 애정 및 소속의 욕구를 들었다. 인간간의 조화로운 관계를 통하여 인간의 정서적 욕구를 만족하는 것이 사회적 차원의 인간의 본능이다. 또한 인간관계는 정서, 소속감, 애정, 존경과 궁극적으로 자아실현의 욕구의 만족감을 실현시키는 사회적 장이다. 만족스러운 결혼생활, 가까운 친구관계, 건강한 부모·자녀관계 등은 이러한 만족감을 충족시킨다. 결국 모든 인간관계는 잠재적으로 치료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인간관계가 외적 개입에 의하여 장애를 받으면 인간의 정서생활에 매우 치명적이다.

그런데 사회주의 사회에서 지도부는 모든 개인이 원자화되어야 국

가의 통제가 용이하다고 보았다. 실제로 사회주의 정권은 대중이 다른 대상에 충성하는 것을 예방함으로써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친구집단은 개인에 대한 국가의 절대적인 지배를 방해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더욱이 친구집단은 흔히 지하조직 형성이나 반정부 활동의 기초가 된다고 인식된다.⁴⁷⁾ 소련사회에서 국가에 대항하는 하나의 중요한 사적 기관이 바로 친구집단이였다. 소련은 동지관계(*comradeship*)는 장려했지만 친구관계(*friendship*)는 금지시켰다. 소련체제가 사람들 사이의 친밀한 친구관계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사회주의에서 소외, 아노미, 고독의 원인의 하나는 사회주의 사회관계의 이러한 특징에서 나온다.⁴⁸⁾

북한 사회에서도 인간관계가 원자화(*social atomization*)되어 있다. 당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인간관계를 억제하는 것이다. 당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한 신뢰는 당의 목적에 잠재적인 반동요소로 작용한다고 여기고 있다. 개인끼리의 관계는 당적 관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개인은 독자적인 집단으로 서로 관계를 맺을 수 없다.

인간관계의 원자화를 조장하는 제도의 하나가 상호 고발제도이다. 고발하지 않으면 고발하지 않은 사람이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이러한 정책은 친구에게 마음을 못주게 한다. 누가 보위부 끄나풀(정보원)인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 속마음을 말하지 않는다고 한다. 정보원이 보위부에 허위보고하여 무고한 사람을 곤경에 처하게 하는 일도 허다하다고 한다. 그래서 북한주민들은 한걸음을 걸어도 조심한다고 한다. 서로를 못믿고 불신한다고 한다.⁴⁹⁾

47) Shlapentokh, *Public and Private Life of the Soviet People*, p. 172.

48) Andrew Walder, *Communist Neo-Traditionalism*,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6), p. 3.

매주 실시하는 생활총화도 인간관계의 원자화를 조장한다. 이제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자극하지 않는 이상 서로 이해하기도 한다. 자기비판이 끝난 다음에는 다른 사람 1명을 비판해야 하기 때문에 적당히 자극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표현하기도 한다.⁵⁰⁾ 그러나 그 제도 자체는 인간관계를 제도적으로 원자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사실이다.

귀순자들은 북한에는 진실한 친구가 없다는 말을 자주 한다. 믿고서 함부로 말하다간 큰일 난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아무리 친한 척해도 옆의 동료를 믿고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한다. 심지어 부부간에도 이혼하게 되면 정치적 발언을 고발하여 복수하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⁵¹⁾

사. 가족연좌제

소련에서 레닌은 집단테러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연좌제(collective guilt)를 사용했다.⁵²⁾ 북한은 유교적 전통을 살려 가족연좌제를 채택하고 있다. 가장 인간적인 측면을 볼모로 잡는 통제양식이다.

북한체제에서 개인의 불만표출과 집단행동을 통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장치는 가족연좌제라고 볼 수 있다. 범법자 당사자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을 같이 처벌하며, 당대 뿐만 아니라 후대에까지 적용을 시킨다. 특히 정치범에게는 예외없이 가족연좌제를 적용한다.

자살도 연좌제의 대상에 포함된다. 북한체제는 자살행위를 반역죄

49) 서철영 (25세, 청진철도국 남양분국 세천역 신호원, 1999.8.14 귀순) 증언.

50) 성환영 (34세, 조선인민경비대 사회안정성 군의관) 증언.

51) 김철대 (47세, 1997.8 탈북, 1999.1 귀순, 과학원 수리공학연구소 연구사) 증언.

52) Brzezinski, op.cit., p. 19.

로 취급한다. 사회에 대한 불만 때문에 자살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반역자로 취급된다. 자살하면 가족이 피해를 본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자살행위가 많지 않다.⁵³⁾ 서철영에 의하면 50세가량의 이웃 사람이 자살했는데 그 가족이 다음날 어디론가 실려갔으며 며칠후 그 가족은 반역자 가족이라는 소문이 돌았다고 한다.⁵⁴⁾ 굶어 죽었다고 말하는 것도 연좌제 대상이다. 그래서 굶어 죽으면서도 굶어 죽었다는 말을 못한다고 한다. 그 가족들이 처벌을 받기 때문이다.

자기자신 하나 생각 같아서는 자동소총으로 다 쏘고 싶지만 가족 때문에 못한다고 증언한 사람도 많이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런 정치적 요인들이 북한주민들의 욕구 충족을 억압하고, 욕구불만의 감정을 표출하는 것조차 억압하는 작용을 한다.

2. 경제적 결핍

매슬로우의 생리적 욕구를 1차적 욕구로 보았는데 이는 정치적 억압보다 경제적 결핍이 더욱 큰 고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경제적 결핍은 생존권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체제에 보편적인 현상으로서 중공업위주의 산업정책 때문에 생필품과 서비스 부문의 공급이 만성적으로 부족했다. 북한에서도 예외가 아니었지만 80년대까지만 해도 부족하나마 배급이 정기적으로 주어졌다. 그러나 90년대에 들어서 북한 경제가 급격히 침체함에 따라 배급제도 그 자체가 마비상태에 처하게 되었다.

배급사정이 가장 곤란한 지역은 함북, 함남 도시지역이다. 함경북

53) 임복신 (48세, 제지공장 책임기사, 1998.10 귀순) 증언.

54) 서철영(25세, 청진철도국 남양분국 세천역 신호원, 1999.8.14 귀순) 증언.

도 회령시 세천지구의 경우 90년에 들어서 반년치 배급을, 96년에는 1년에 두달치 배급을, 97년에는 1달치 배급을 받았다고 한다. 주변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세천지구에서 10%가량 죽었다고 한다. 세천동 주민 2만명 중에서 3천명 정도 죽었다고 한다. 이웃에 3층 아파트 2개동이 있었는데 3층 맨 위층이 모두 비었다고 한다. 3층에 비가 세기 때문에 아래층에 빈집이 생기면 아래층으로 이사를 한다고 한다. 옛날에는 집이 모자랐는데 이제는 빈집이 너무 많다고 한다. 중국에 가거나 굶어 죽은 사람의 집이라는 것이다.⁵⁵⁾ 이 지역은 간부중에도 당위원회 사람과 배급 및 기업을 관리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행정위원회 간부도 배급을 못타먹는다고 한다. 기업소 관리들은 기업생산물을 협상수단으로 사용하여 배급을 타먹는다고 한다.⁵⁶⁾

아사자가 많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여러 경로를 통하여 관찰되고 있다. 한 귀순자는 1996년 12월 기차안에서 한 상좌가 전쟁 3년 했을 때보다 사람이 더 많이 죽었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영양부족과 수질오염으로 장티부스, 파라티부스, 콜레라, 발진티부스 등으로 죽은 사람이 많다고 한다.⁵⁷⁾ 양성결핵환자가 1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60개 결핵요양소, 12개 결핵병원중에서 겨울철에는 입원환자가 없는 곳이 많다고 한다. 그 까닭은 병실에 난방이 안되기 때문에 환자들이 귀가한다고 한다.

북한의 배급상황이 개선될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북한 경제의 근간이 붕괴되었기 때문이다. 에너지, 전기 등 기간산업과 공장들이 가동

55) 서철영(25세, 청진철도국 남양분국 세천역 신호원, 1999.8.14 귀순) 증언.

56) 임복신(48세, 제지공장 책임기사, 1998.10 귀순) 증언.

57) 김난애(36세, 과학기술위원회 국가품질감독원 사무원, 1997.10.19 귀순) 증언.

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 연료, 원료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경제는 당경제, 군수경제, 내각경제로 나누어져 있는데, 북한에서 가장 많이 가동되는 것은 당경제이며 당경제도 70% 정도 가동된다는 지적도 있다. 당경제의 나머지 30%는 가동되지 않으며, 군경제도 40~50%는 가동되지 않는다고 한다. 군수경제부문에서도 배급을 못주어 많은 사람이 굶어죽었다. 사실 군수공장 종업원이 제일 많이 굶어 죽었다고 한다. 산골지역에 위치해 있어 농사도 못짓고, 채소농사도 안되는 곳이어서 제일 많이 죽었다고 한다. 북한 경제 전반에 걸쳐서 볼 때 주요 공업만 15%정도 가동되고 나머지는 가동이 중단되었다고 한다.⁵⁸⁾

이상에서 보듯이 북한의 공식경제가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암시장에서 식량을 상당부분 조달하고 있다. 북한당국은 주민들의 이러한 추세를 부추기기라도 하듯이 '강행군 자력갱생'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과거 국가차원의 발전전략이던 자력갱생을 개인 가계 차원의 자력갱생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생존권의 위기가 극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생리적 욕구가 불만족될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58) 이임영 (36세, 금수산의사당 경리부, 1997.12 귀순) 증언.

IV. 북한주민들의 결핍증후군

1. 욕구불만 및 박탈감

식량난과 정치적 억압으로 북한주민에게 생긴 욕구의 결핍증후군은 절대적 차원의 욕구불만(absolute deprivation) 뿐 아니라 상대적 차원의 불만(relative deprivation)을 느낀다는 측면에서 결핍증후군이 매우 심각한 편이며, 개인의 불만은 이미 사회적 불만으로 발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물리적 억압 때문에 집단행동으로 표출되지 않고 억압되어 있을 뿐이다.

절대적 욕구불만을 나타내주는 조사 결과가 있다. 1998년 9~10월 북한정부의 협조로 세계식량계획(WFP), 유엔아동기금(UNICEF), 선교연합(EU) 등은 합동으로 북한어린이에 대한 영양실태를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은 생후 6개월에서 7세 사이의 어린이였다.⁵⁹⁾ 이 조사에서 경증 및 중증의 허약증(moderate and severe) 혹은 극심한 영양실조(acute malnutrition)를 겪고 있는 숫자는 전체 어린이의 16%에 달하였으며, 이중 3%는 부종 상태를 보이고 있었다고 한다. 통상적

59) 조사대상 선정은 여러단계를 거쳐 행해졌다. 측정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 130개의 군(전 국민의 71%에 해당) 중 전체대상군을 반영할 수 있는 확률로 30개군이 우선 선정되었다. 그후 각군당 다시 4개의 면/동이 선정되었다. 마지막으로 전체 120개의 면/동 각각에서 30가구씩이 선정되었는데 이 연구에 포함된 전체가구수는 3,600가구였다. 이 때 각각의 면과 동사무소에서 6개월부터 84개월까지의 아동이 있는 가구를 선정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자료수집은 1998년 9월 23일부터 동년 10월 16일까지 14개 팀(각각 1명의 외국인과 4명의 한국인으로 구성)들이 나이, 성별, 키, 몸무게, 부종의 징후를 기록하였다. 신의진·천근아, “북한의 기아상태가 소아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학술발표회, 「북한사람-삶의 질, 굶주림, 남한사회 적응」(1999년 12월 8일), p. 8.

이거나 극심한 체중미달(연령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체중) 증세를 보인 경우는 대략 61% 수준인 반면, 통상적이거나 극심한 발육부진 혹은 만성적인 영양실조를 보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는 조사된 어린이의 62%에 달하였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허약률을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⁶⁰⁾ 이러한 통계자료는 북한주민의 절대적 결핍감을 증명하기에 충분한 증거이다.

그런데 절대적인 결핍감보다 사회적·정치적으로 더 의미있는 것은 상대적 박탈감이다. 상대적 박탈감은 나 자신과 남, 현재와 과거의 비교라는 관점에서 느껴지는 불만이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정치적·사회적 저항으로 연결되는 감정이다.

북한주민들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과거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라 최근 들어서, 특히 김정일의 등장이후에 심해졌다는 점에서 시간간을 비교하는 상대적 불만감이 크다. 비교의 관점이 생긴 것이다. 비교의 관점이야말로 북한지도자의 '절대적 무오류론'을 초월하는 관점의 첫 출발이 된다. 정보통제 때문에 다른 사회와의 직접 비교는 어려워도 자신들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함으로써 시대적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비교의 준거들을 가지게 되는 것은 북한주민들에게 이상화교육을 비판하고 현실적인 사유를 하게 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김일성에 대한 지지는 절대적이었는데 비하여 김정일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지닌다.

김정일시대에 대한 부정적 평가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북한의 경

60) FAO/WFP, *Special Report: FAO/WFP Crop and Food Supply Assessment Mission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9, June, 1999; *Special Report: FAO/WFP Crop and Food Supply Assessment Mission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8 November, 1999.

제적 어려움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 경제적 어려움의 근원이 김정일의 통치 실패에 있다는 주민들의 인식이다. 북한주민들은 70년대 초에는 잘 살았는데 김정일이 등장한 70년대 중반부터 경제가 침체되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김일성 사후 김정일이 본격적으로 최고통치자 역할을 하고 있는 90년대 중반에 더욱 심각해졌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일성 시대와 김정일 시대를 비교하는 북한주민들의 정서를 나타내는 은어가 있다. 김일성 시대에는 죽이라도 먹었다고 해서 김일성을 죽장군이라고 부르고, 김정일 시대에 들어서는 풀을 먹는다고 하여 김정일을 풀장군이라고 부른다는 것이다.⁶¹⁾

북한주민들은 특히 외세의 식민 치하에 있던 시기와의 비교한다고 한다. 나이가 든 사람일수록 “일제시기에도 떡을 먹었고 6·25전쟁후에도 먹고 싶은 것을 먹었는데 지금은 너무 한심하다”고 불평하고 있다고 한다.⁶²⁾ “왜정때도 굶어 죽지 않고 살았으며 살 길을 찾아 살고 싶은 곳에 살았다. 남한에 있을 때 지주의 소작살이 했는데도 하루에 다섯끼씩 먹었다”고 말하곤 한다.⁶³⁾

간부급에서도 표현은 완곡하지만 시대를 비교하는 발언들이 나온다고 한다.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어, 앞이 캄캄해, 일제때부터 살았는데 김정일 시대에 와서 굶어 죽게 되었어”라고 말한다.⁶⁴⁾

상대적 박탈감의 또 하나의 축은 계급간 불평등의 심화이다.⁶⁵⁾ 북한의 일반주민들은 고위급 간부들이 상대적으로 매우 부유하게 살고

61) 김철태 증언

62) 차영갑 (96.5.31 귀순, 전 문예부 산하 매아리 음향사 음향연구소장) 증언.

63) 임복신 (48세, 제지공장 책임기사, 1998.10 귀순) 증언.

64) 임복신의 증언.

65) 자세한 분석은 서재진, 「북한사회의 계급갈등 연구」(통일연구원, 1996) 참조.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주민들은 간부들이 자기 생활에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일에 아침하기 바쁘다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⁶⁶⁾ 즉 간부계층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적대감이 매우 고조되고 있다는 점에서 계급간 상대적 박탈감이 매우 심하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 불만의 가장 큰 요인이 바로 계층간 불평등 의식에서 나온다. 칼 맑스도 계급간의 불평등과 갈등이 사회변화의 동력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박탈감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들은 박탈당하는 감정을 집단행동 (collective violence)으로 발전시킬 수가 없다. 북한 당국의 강력한 통제력 때문이다. 이것이 북한주민들이 감정정체를 겪게되는 원인이다.

2. 공격적 행동

욕구의 만족이 방해되면 욕구불만의 상태가 되며, 욕구불만이 강해지면 공격적인 행동(aggressive behavior)을 하게 된다. 공격적인 행동이 격화되면 적의나 분노와 같은 행동이 나타나며 때려부수는 파괴적 행동이 나타난다.

공격적인 행동은 가능한 한 욕구불만이라고 생각되는 대상이나 사람에 대하여 자기의 적대감을 직접적으로 나타내고자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욕구불만의 원인이 되는 대상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공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대상인 동료와 말다툼을 하거나 싸움을 한다.

북한의 주민들은 욕구불만의 상태에서 프로이트가 주장한 욕구불만시의 행동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90년대에 남한으로 귀순한 북

66) 정석영 (23세, 함북도 인민학교 교원, 1999.1 귀순) 증언.

한 사람들의 거의 100%에 가까운 사람들이 비슷한 내용의 증언을 하였다. 북한 주민들은 “쪼들리고 꺾박받으니 이제는 약밖에 남은 것이 없다”는 말을 자주한다. 북한주민들은 짜증을 많이 내고 말이 거칠고 언성이 높다. 생활과정에서 쌓인 스트레스가 풀리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이다. 그래서 직장 동료, 친구, 이웃간에 걸핏하면 싸움질을 한다는 것이다.⁶⁷⁾

악이 날대로 나옴기 때문에 조금만 자극하면 싸움질이 난다고 한다.⁶⁸⁾ 세상만사가 귀찮아 사소한 일에 싸움질을 한다. 북한인들은 심심치 않게 도로바닥, 시장바닥 등에서 싸움질을 한다고 한다. 한두마디에 신경질을 내고, 다투고, 싸운다. 북한 귀순자들의 표현에 의하면 “말 두마디에 주먹이 오간다”고 한다.⁶⁹⁾

직장에서 상하간의 싸움도 많다고 한다. 과거에는 직장 상사, 즉 간부에 대한 싸움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라고 한다. 직장내 당간부 사무실의 문고리도 조심스럽게 잠곤 했었는데 이제는 달라졌다고 한다.

청년들에게는 패싸움이 많다고 한다. 청년들일수록 싸움이 많은데 그것은 스트레스를 못참기 때문이라고 한다. 최근에는 싸움이 더 증가하고 있다. 농민시장, 암시장을 중심으로 조직화되기 시작했다. 개 인간에 싸움이 붙으면 집단간 싸움으로 번지기 일쑤이다. 표출하고 싶은 스트레스 때문이다.

가족간의 싸움도 많다. 북한에서 아파트는 주민들이 생활하는 하

67) 김철대 (47세, 1997.8 탈북, 1999.1 귀순, 과학원 수리공학연구소 연구사) 증언.

68) 성환영 (34세, 조선인민경비대 사회안정성 군의관), 임복신 (48세, 제지공장 책임기사, 1998.10 귀순) 증언.

69) 정석영 (23세, 함북도 인민학교 교원, 1999.1 귀순), 이재 (37세, 군예술헌전대 작가 겸 연출자, 1999.3 귀순) 증언.

나의 단위이기 때문이다. 직장, 교육, 노동 등에서 같이 동원되어 자주 접촉하게 되는 데 싸움이 많다고 한다.

통제불능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한다. 집에 있는 것보다 감옥가면 밥이나 먹여준다고 생각하며 “날 잡아죽여라, 맘대로 하라, 난 뺨길 것도 없다”고 말하며 반항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심리적 스트레스의 영향으로 성격이 일그러졌다고 한다. 즉, 신경질적이고 호전적으로 변화하였다. 사람들의 얼굴표정은 “의견 투성이, 불만 투성”이라고 한다. 이러한 표정을 한 사람에게 흔히 하는 말은 “돈떼어 먹은 시어머니 인상을 해가지고”, “소낙비 올 것처럼 흐린 날씨를 해가지고”, “우거지상 좀 펴라” 등이라고 한다.⁷⁰⁾

짜증의 첫째 근원은 경제적 궁핍에 있다. 생활상의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여 감정의 갈등으로 발전되고 성격적 갈등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짜증의 둘째 원인은 정치적 통제 때문이다. 욕구불만이 많은데 말도 못하는 상황이 주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한다.

대학교수들의 경우에도 자기 전공을 연구할 시간도 없는데 사상학습 과제를 많이 내주어 자꾸 엉뚱한 일을 시키기 때문에 미칠 지경이며 스트레스가 많다고 한다. 경제관료들의 경우, 합리적이지 못한 지시가 상부에서 내려오면 불만을 표출도 못하고 집에 와서 짜증을 낸다고 한다.⁷¹⁾

싸움을 자주하는 또 다른 원인은 북한당국이 주민들 사이의 인간관계에 불신을 조장했기 때문이다. 개인사이를 서로 감시하게 하고 고발하게 하여 서로 믿지 못하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다. 서로 믿게 되면 단결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친구사이에 서로 가슴을 터놓고 말도 못하고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⁷²⁾

70) 이임영 (36세, 금수산의사당 경리부, 1997.12 귀순) 증언.

71) 차제명(전 북한 대학교수) 증언.

3. 절망

북한주민의 사회심리의 한 특징은 절망이다. 93년까지만 해도 입당 하거나, 간부되는 것이 주민들의 일반적 희망이었다. 그런데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부터 북한 주민들은 입당에 대한 열의가 없어졌다. 입당해야 별 대가가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당조직 와해의 첫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

북한주민들은 김일성 사망이후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었다고 한다. 북한주민들에게 김일성은 메시아로 인식되었는데 메시아의 급작스런 소멸은 전체 사회에 절망적 분위기를 야기시켰다고 한다. 김일성이 죽은 마당에 이제 생활이 나아질 전망이 전혀 없다고 느끼기 시작한 것이다. 일반 주민들은 나라의 희망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망하는 것은 시간문제이며, 언젠가는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⁷³⁾

북한주민들의 절망적 심리는 음주에 탐닉하는 행위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에는 90년대 들어서 심하게 술풍이 불었다고 한다. 돈이 생기면 식량을 사서 생활할 궁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술이나 먹어버린다는 것이다. 술풍도 험해졌다고 한다. 남자들은 술로서 중독되다시피 했으며, 공장 것, 집안 것 내다 팔아서 술을 사먹는다고 한다.

술을 마시는 이유는 삶이 권태로와서가 아니라 고달픈 현실을 잊기 위해서라고 한다. 전망도 희망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도피할 수 있는 술이 좋다는 것이다. 금년에는 굶더라도 내년에는 안굶는다는 희망이라도 있으면 술을 안먹을 텐데 암담하기

72) 김철대 (47세, 1997.8 탈북, 1999.1 귀순, 과학원 수리공학연구소 연구사) 증언.

73) 정석영 (23세, 함북도 인민학교 교원, 1999.1 귀순) 증언.

때문에 자포자기 상태에서 술이나 먹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⁷⁴⁾ 절망적 심정을 술로 달래 수 없는 여자들은 살기가 더 힘들다고 한다. 여자들은 한숨짓고 탄식만 한다고 한다.

술을 많이 먹게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밀주를 많이 팔기 때문이라고 한다. 몰래 술을 빚어서 파는 장사꾼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술풍은 북한에서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사회주의 국가의 경우는 그 이유가 좀 달랐다. 소련인들도 과음, 음주벽, 알콜중독이 매우 심했다. 1980년대초가 되면서 음주벽의 해악은 매우 컸다. 1980년대 소련에서 술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80~85%에 달했다. 국민건강, 도덕, 공중질서, 노동생산성 면에서 너무 심각한 영향을 미쳐 무시할 수 없는 정도가 되었다. 고르바초프는 광범위한 반음주 캠페인으로 급진적 개혁정책을 시작했다.⁷⁵⁾

소련의 경우 음주벽의 원인은 첫째, 일상생활이 너무 권태로웠기 때문이다.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잡지, 책이 모두 재미없는 것이며, 이들 매체의 목적은 독자를 재미있고 편안하게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교육, 세뇌, 계몽을 위한 것이었다. 술이 여가시간을 보내고 용돈을 지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던 것이다.⁷⁶⁾ 북한과는 그 이유가 다른 것이다.

욕구불만과 스트레스에 기인한 정신병에 관해서는 귀순자들의 증언이 엇갈린다. 정신병이 많다고 증언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90년대 북한에 정신병이 증가하는 것 같지는 않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있다.

74) 임복신 (48세, 제지공장 책임기사, 1998.10 귀순), 성환영 (34세, 조선인 민경비대 사회안정성 군의관) 증언.

75) Vladimir G. Trembl, "Drinking and Alcohol Abuse in the USSR in the 1980s," in Anthony Jones, Walter D. Connor, David Powell eds., *Soviet Social Problems* (Boulder: Westview Press, 1991), p. 119.

76) *Ibid.*, p. 127.

북한에 정신병이 많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스트레스는 쌓이고 할 말을 못하기 때문에 정신병이 많다고 주장한다. 스트레스, 감정해체, 강도, 강간, 범죄 등이 급증하는데 미치는 사람이 안 나올 수 없다고 주장한다. 북한에는 정신이상자가 많으며 도·시·군별로 소재한 정신병 전문 진료기관인 49호병원이 문을 닫지 못할 정도라고 한다. 평양에 근무하는 의사들에 의하면 정신병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약이 없어서 치료를 못하는 실정이라고 한다.⁷⁷⁾

어떤 귀순자는 인육사건을 예로 들면서 사람을 잡아먹는 것보다 더 정신이상 현상이 있느냐고 하면서 정신병이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먹지 못하면 사람도 짐승처럼 보여서 잡아 먹는다고 한다. 그는 인육사건이 한두건이 아니라고 주장했다.⁷⁸⁾

반면 어떤 귀순자는 북한에서 인간적 품행과 도덕에 벗어나는 사례는 많고 양심은 다 없어지기는 하였지만 정신병은 증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⁷⁹⁾

북한에서 자살은 반체제 행위로 규정되어 있으며 유가족까지 반역자의 가족으로 몰리기 때문에 자살율이 낮은 것이 특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살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가령, 김철대의 증언에 의하면, 자기 친구인 이광남(49세)이 바이올린에 소질이 있어 백호산의 제자로 들어가서 컸으며, 「백두산에 올라」라는 영화에 출연하여 바이올린을 컸을 정도로 재능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성분이 나빠 대학에 못가게 되자 절망하여 음악 인생을 포기하고 자살했다고 한다.⁸⁰⁾

최근에는 식량난과 경제난으로 인하여 자살율이 다소 증가하고 있

77) 성환영 (34세, 조선인민경비대 사회안정성 군의관) 증언.

78) 정석영 (23세, 함북도 인민학교 교원, 1999.1 귀순) 증언.

79) 임복신 (48세, 제지공장 책임기사, 1998.10 귀순) 증언.

80) 김철대 (47세, 1997.8 탈북, 1999.1 귀순, 과학원 수리공학연구소 연구사) 증언.

다고 한다. 특히 노인들이 자살을 많이 한다고 한다.⁸¹⁾ 자살은 아편 과도 관련이 있다고 한다. 92년이후 아편을 많이 심었는데 북한사람 들은 누구나 아편을 조금씩 갖고 있으며, 아편을 많이 먹으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한다. 노인들이 아편먹고 자살하는 경향이 많다고 한다.⁸²⁾

장사를 하다가 실패하고 빚을 짊어지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혜산에서 남편이 장사하다가 발각되어 감옥에 간후 부인은 빚더미에 헤어나지 못하자 아편먹고 죽었다고 한다.⁸³⁾

4. 고착

메슬로우가 지적한 대로 1차욕구가 충족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위욕구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것이다. 상위욕구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지 않으면 1차욕구에만 고착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북한주민의 대다수는 현재의 상황에 절망하고,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으며, 1차욕구에 집착·고착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 소속감의 욕구, 사람의 욕구, 이상적 자아실현 등의 상위의 동기는 상실된 것이다. 개인의 꿈, 장래희망, 비전을 가질 여유가 없다. 내일 당장 굶어 죽을 형편인데 내일 희망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당장 먹고 사는 일에만 신경쓰면서 사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⁸⁴⁾

핵심계층, 동요계층, 적대계층을 막론하고 자신과 자기가족의 1차

81) 성환영 (34세, 조선인민경비대 사회안정성 군의관) 증언.

82) 김난애 (36세, 과학기술위원회 국가품질감독원 사무원, 1997.10.19 귀순) 증언.

83) 김난애 증언.

84) 김철대 (47세, 1997.8 탈북, 1999.1 귀순, 과학원 수리공학연구소 연구사) 증언.

육구 해소에 전념한다. 지식의 높낮이, 학력수준에 상관없고 직업별로도 차이가 없이 생존을 위하여, 1차육구 해결을 위하여 산다고 한다. 신분상승, 입당, 권력잡는 것이 모두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을 위한 것으로 인식된다고 한다.

북한주민의 직업선호도에서도 1차육구 고착현상이 잘 드러난다. 북한주민들은 안전원들을 법일군이 아니라 도둑놈들이라고 비판하면서도 안전원이 되는 것을 선호한다. 또한 군인도 직업으로 선호하는데 그 까닭은 군에 가면 배급을 더 잘 주기 때문이라고 한다. 먹는 문제에 고착되어 있기 때문에 나오는 발상이다.⁸⁵⁾

통치이념이 집단주의이지만 남을 배려하지 못하고 자기자신만 생각하며, 자기가 필요할 때 남을 철저히 이용하는 등 자기만 아는 생활이 체득되었다고 한다.

고착의 정치적 영향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첫째, 1차육구에의 고착은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극대화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귀순자들의 증언에 의하며 북한인들은 역정만 내고 신경질적이고 오직 자기자신, 가족의 먹고 사는 문제에만 신경쓴다고 한다. 굶어서 쓰러진 사람들이 많지만 남을 동정할 형편이 못된다고 한다. 기본육구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남을 배려하는 일이 없으며 자기 외에는 없다는 것이다.⁸⁶⁾

둘째, 북한인 대다수는 목구멍에 풀칠하는 문제 때문에 정권에 대한 불만, 김정일에 대한 반감을 가질 여유조차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김철대의 증언에 의하면 김책시의 경우 북한체제내에서만 산 사람들은 정치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다고 한다. 자기 자신의 먹

85) 정석영 (23세, 함북도 인민학교 교원, 1999.1 귀순), 성환영 (34세, 조선인민경비대 사회안정성 군의관) 증언.

86) 임복신 (48세, 제지공장 책임기사, 1998.10 귀순) 증언.

고 사는 문제에만 신경쓴다는 것이다. 기본욕구에만 집착해 있기 때문에 민주화의 욕구는 없으며 관심이 없다고 한다. 오로지 개인과 가족의 생존에 고착해 있다. 가족까지 버리고 개인의 생존을 도모하는 경향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발전이 있어야 민주화의 요구가 발생한다는 일반적인 이론이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기본욕구 충족이 한계에 달할 때는 먹을 것을 달라고 항거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민주화, 체제변화를 요구하는 항거는 없어도 먹을 것을 달라고 항거할 수는 있을 것이다.

V. 사회심리적 병리현상

1. 감정정체

좌절감, 박탈감을 느낄 때는 집단행동을 통하여 좌절감을 표출하고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 정상적인 통로이다. 그러나 결핍상황에 덧붙여 감정 표출까지 금지될 때 더욱더 적응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바로 이 감정금지에는 사회주의체제에서 “사회주의적” 교육의 이상들 중에서 가장 높은 이상에 속했다고 한다. 불안, 분노, 괴로움, 슬픔, 쾌감 등의 감정은 모두가 터부시되었다. 부정적 감정들은 피해야 하며, 기쁨은 자제되어야 했다는 것이다. 감정을 지배하고 억제하는 것이 중요한 이상으로 통했다는 것이다. 자신의 감정프로세스를 통제하고 배제하는 것을 아주 잘 배운 사람만이 당, 국가기구, 군의 간부로 등용될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⁸⁷⁾

억압적인 전체주의 체제에서 발생하는 사회심리가 북한에서도 발견된다. 엄격한 통제와 처벌 때문에 불만감, 좌절감을 표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불만과 악을 가슴에 품고 말을 못하고 현실에 대한 반항심을 개인적 싸움으로 발산한다는 것이다.⁸⁸⁾

북한주민들은 문제의 본질을 훤히 꿰뚫어 보고 있으면서도 표현은 못하며 잘못된 사회라는 것을 다 알면서도 표현을 못한다고 한다. 북한주민의 거의 전부가 같은 생각을 가졌다고 한다.⁸⁹⁾

이러한 북한주민의 감정상태를 가장 잘 표현하는 개념은 Melvin

87) 한스-요하임 마즈, 위의 책, pp. 89-91.

88) 정석영 (23세, 함북도 인민학교 교원, 1999.1 귀순) 증언.

89) 이재 (37세, 군예술선전대 작가 겸 연출자, 1999.3 귀순) 증언.

Seeman이 정의한 개념인 무력감(powerlessness)이다. 무력감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느낌이다.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내가 비판도 할 수 없고, 저항도 할 수 없다. 자살 조차도 할 수 없다. 자살은 가장 극단적인 반역행동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유족들이 반역자 가족취급을 받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자포자기의 심리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막가파식의 심리상태가 된다고 한다. 통제를 해도 듣지 않고 죽이겠으면 죽이고 말하겠으면 말이라고 한다고 한다. 또는 꽃계비로 전략하기도 한다. 절망에 다다른 사람들이 살아갈 용기도 없고 살 필요도 없어 유랑걸식하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⁹⁰⁾

정석영도 비슷한 내용의 증언을 하였다. 북한주민들은 죽지도 못하기 때문에 자포자기, 이판사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생활을 다 포기하고 목숨이 붙어있으니 산다는 것이다.⁹¹⁾

이러한 감정이 축적되어 한으로 남는다고 한다. 가슴이 꽉 막히는 듯한 답답함과 분노와 억울함을 표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는 감정의 소화불량이 응어리져서 한으로 남아 있다. 한이 맺힌 사람이 많다는 증언을 북한귀순자들은 자주 한다. 전쟁이 나면 총부리를 먼저 겨누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다는 것이다.⁹²⁾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심리상태를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습성화되어 있으며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일반화된다고 한다.⁹³⁾

감정정체된 경우 표정은 전반적으로 어두컴컴하다고 한다. 걸어도

90) 이임영 (36세, 금수산의사당 경리부, 1997.12 귀순) 증언.

91) 정석영 (23세, 함북도 인민학교 교원, 1999.1 귀순) 증언.

92) 김철대 (47세, 1997.8 탈북, 1999.1 귀순, 과학원 수리공학연구소 연구사) 증언.

93) 김철대 (47세, 1997.8 탈북, 1999.1 귀순, 과학원 수리공학연구소 연구사) 증언.

니는 사람들이 모두 쾌기없고 활기 없고, 수심에 잠겨 있으며, 육체적으로 소진해 있다고 한다.⁹⁴⁾

감정과 의사표현을 하지 못하고 감정을 속으로 삭이는 북한주민의 심리상태에 대해서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도 비슷한 내용의 지적을 했다. 북한에서는 아무리 옳은 말일지라도 누구한테나 쉽게 하지 못하는데, 자신도 역시 가슴에만 이런저런 분노와 원통함을 담고 있을 뿐, 가족에게조차 아무런 말도 못한 채 걸으려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일을 해 왔다고 한다.⁹⁵⁾

2. 성격변형

한스-요하임 마즈가 지적한 대로 감정정체의 심리상태는 결핍증후군의 결과이자 또다른 기형화의 원인이 된다. 제약, 결정권자들의 자유박탈, 타협없는 절대적 적응압박, 억제, 검열, 처벌로 인해 생활방식이 마비되었고, 발전과 성장이 저해된다. 억압체제는 감정억제, 자제, 엄격, 순종, 성적인 욕구의 전적인 무시, 쾌락과 기쁨을 엄금했고, 강도높은 소리, 활력, 강한 동작 욕구, 모든 개성적인 것은 저지되었다. 이것은 결국 그와 같은 체제하에서는 정상적인 건전한 행동은 낙인을 받게 되며, 때문에 수동적으로 행동하는 기형화된 자들만이 살아남을 기회를 갖게 된다는 것을 일컫는다.⁹⁶⁾

북한주민의 수동적인 성격을 가장 잘 표현한 말이 북한의 전 군예술선전대 작가 겸 연출자 이재의 “노예적 근성”이라는 말인 것 같다.

94) 임복신 (48세, 제지공장 책임기사, 1998.10 귀순), 이임영 (36세, 금수산 의사당 경리부, 1997.12 귀순) 증언.

95) 황장엽, 「나는 역사의 진실을 보았다: 황장엽 회고록」 (서울: 한울, 1999), p. 281.

96) 한스-요하임 마즈, 앞의 책, pp. 114, 307.

이재의 증언에 의하면 주체사상에서 자주적 인간상, 창조적 인간상을 강조하지만 노예적 근성이 북한주민의 실제 모습이라는 것이다. 북한의 작가들이 흔히 하는 말의 하나는 “왜 우리 민족은 노예적 근성이 골수에 사무쳤나”라는 것이라고 한다. 그는 북한 사람들이 동료들끼리, 또는 하급 병사들에게 흔히 하는 말이 “노예근성이 골수에 사무친 놈들아”이라는 것이다. 그는 북한주민의 수동적 태도를 노예적 근성이라고 판단하는 근거로서, 북한주민들은 “항상 무서워한다, 머리를 숙이고 압박감을 느낀다, 힘있는 사람을 무서워한다”는 측면을 지적했다. 그는 어느 사회든 힘있는 사람을 무서워하지만 북한은 더 심하다고 지적하고, 하도 못사는 것이 옛날의 노예제도와 같다는 말도 덧붙였다.⁹⁷⁾

북한의 한 작가는 동료들 중에서 좋은 글을 쓴 것으로 평가되어 김정일에게 상을 받고 온 작가에게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글을 쓰게 되었느냐고 물었더니 “도립(倒立)해서 글을 쓴다”(세상을 거꾸로 보면 진리에 가깝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북한 당국이 선전하고 가르치는 것과 다르게 글을 쓰면 글로서는 독창적이고 참신한 글로 평가 받는다는 의미이다.⁹⁸⁾

북한주민의 수동성을 입증해주는 일화의 하나가 임수경의 방북활동에 대한 귀순자들의 평가이다. 질문에 응한 귀순자 전원이 매우 유사한 내용의 응답을 하였다. 북한주민들이 가장 놀란 사실의 하나는 임수경이 대중앞에서 원고없이 자유자재로 연설을 한다는 것이다. 북한인은 각본과 임무에 따라 행동하는데, 임수경은 원고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데 놀랐던 것이다. 북한에는 고위간부도 연설할 때 원고를 보고 읽는데, 임수경은 당돌하고 활달하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97) 이재 (37세, 군예술선전대 작가 겸 연출자, 1999.3 귀순) 증언.

98) 이재 증언.

한다. 북한에서는 말조심해야 하기 때문에 북한 젊은이는 자유를 주어도 그렇게 못한다고 한다. 교육을 그렇게 받아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⁹⁹⁾ “임수경은 자연인, 북한인은 기계인”이라고 표현한 사람도 있다.¹⁰⁰⁾ 북한사람들은 주어진 상황에 맞는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한다. 구체적 상식도 없고 김일성·김정일 혁명역사만 알기 때문이라고 한다. 생활총화를 1주일에 한번씩 하기 때문에 토론을 자주하여 군중 앞에서 위축되지는 않지만 남앞에서 의사표현을 제대로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실제 감정 표현은 더 잘 하지 못한다고 한다. 정치적 색채를 띤 표현만 하여 왔기 때문이다.¹⁰¹⁾

임수경을 보고는 누구나 다 탄복했다고 한다. 대중앞에서 말을 자연스럽고 하고, 저렇게 행동하는 자체가 편안함을 가지고 생활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¹⁰²⁾

북한 주민은 개성이 무시된 채 눈치만 보며, 독재자를 찬양한다고 한다. 조금만 비방해도 당장 처벌 받기 때문에 제 목숨만 유지하고자 한다고 한다.¹⁰³⁾ 이처럼 임수경의 충격이 있기 전에는 억압체제에서 억압되어 사는 것이 일상화되었다고 한다. 그 자체가 사람사는 것으로 인식하며 왜곡된 의식구조를 의식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외부인을 접하거나 외국에 다녀본 사람만이 비로소 이런 나라는 세상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한다.

북한주민의 일상생활속에서는 다른 측면이 있다. 정서적인 위축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능동적으로 적응해서 생존하고자 하는 생존의

99) 임복신 (48세, 제지공장 책임기사, 1998.10 귀순) 증언.

100) 이재 (37세, 군예술선전대 작가 겸 연출자, 1999.3 귀순) 증언.

101) 성환영 (34세, 조선인민경비대 사회안정성 군의관) 증언.

102) 정석영 (23세, 함북도 인민학교 교원, 1999.1 귀순) 증언.

103) 김철대 (47세, 1997.8 탈북, 1999.1 귀순, 과학원 수리공학연구소 연구사) 증언.

본능은 매우 강하다고 한다. 공적 세계에서는 수동성이 특징적이지만 개인의 문제에 있어서는 세워진 법과 질서속에서 어떻게 뚫고 나갈 것인지를 생각하지 주눅들지는 않는다고 한다. 가령, 식량을 구하기 위해 길을 떠날 때 위축되어 고민하는 것보다는 여행증명서 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궁리하다가 “여행증명서 없어도 나는 간다”라고 체제의 통제를 뛰어넘는다는 것이다. 하라는 대로 하면 결과가 뻔하니 통제의 벽을 넘는다. 통제 자체가 완벽할 수 없으니 대충 눈치 보며 다치지 않을 정도로 요령을 부리며, 일상생활의 경험에 의해 일탈의 수위 조절을 잘 한다고 한다. 국가가 정책을 설명해주기 때문이 아니라 인민들이 대략 눈치로 살아간다는 것이다. 주눅들지 않고 요령껏 자기 보신을 잘 한다. 자기 나름의 자유, 재량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북한주민의 공적 세계와 사적 세계에서의 이중성을 잘 보여주는 측면일 것이다.¹⁰⁴⁾

3. 불안

정신의학적으로 노이로제(신경증)는 불안신경증, 공포증, 강박신경증, 우울신경증, 신경쇠약, 격리신경증, 건강염려증 등의 징후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대체로 불안감 때문에 야기되는 징후들이다.

사회주의체제 사람들은 공권력에 대한 공포심, 타인에 대한 경계심이 많다. 이러한 불안과 공포심을 노이로제라고 진단하기는 어렵지만 북한 귀순자들에 대한 증언에서 나타난 징후들을 볼 때 불안감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 주민들은 두가지 종류의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첫째

104) 임복신 (48세, 제지공장 책임기사, 1998.10 귀순) 증언.

는 언제 내가 정치적 희생물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불안감이다. 일반적으로 억눌려만 살았기 때문에 심리속에 공포심이 있다고 한다. 공개처형이 공포심의 주요 요인이 되며, 이웃의 사람들이 갑자기 행방불명되는 사건 등이 일상적으로 의식되고 있다고 한다. 북한주민들은 현재와 같이 모든 행위가 비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속에서 누구나 걸면 누구나 다 걸리게 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당에서 시키는 대로 따르지 못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 항상 불안하다고 한다.¹⁰⁵⁾

북한주민의 불안감은 또한 감시와 고발제도에 기인하는 것이다. 누가 나를 감시한다는 공포심이 항상 있으며, 정치범으로 고발되면 가족이 다 처형된다는 불안감이 있다. 이러한 감정은 일반인들도 비교적 다 느낀다고 한다. 일반인 사이에도 정보원(눈까리)이 어디나 있기 때문에 말을 가려서 해야 한다.¹⁰⁶⁾

북한주민들은 항상 불안에 싸여 있기 때문에 안전원이 지나가면서 “야!” 하고 부르면 “깜짝 놀란다”고 한다. 북한에서 안전원, 보위부원이 한 개인을 표적으로 삼아 파고 들면 법과 당규약에 안 걸릴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보위부원이 “내마음까지 꿰뚫어 본다”고 생각할 만큼 무서워한다는 것이다. 보위부원이 찾는다고 하면 누구나 다리 오금이 저린다고 한다. 수용소에 잡혀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별히 반체제 행동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모두가 발언을 잘못해서 체포되었기 때문이다.¹⁰⁷⁾ 누구에게나 불안감이 항상 있다.

둘째는 생활에 대한 불안감이라고 한다. 과연 내가 저 죽어가는 사람처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불안감이 있다고 한다.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는 현실에서 생존 그 자체가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인

105) 정석영 (23세, 함북도 인민학교 교원, 1999.1 귀순) 증언.

106) 이임영 (36세, 금수산의사당 경리부, 1997.12 귀순) 증언.

107) 이재 (37세, 군예술선전대 작가 겸 연출자, 1999.3 귀순) 증언.

것으로 보인다.

두가지 불안은 모두 죽음과 관련되는 불안감이다. 미래의 불확실성에서 일상생활형의 불안이 아니라 절박한 상황의 불안이다. 신분이 높을수록 정치적 불안이 많고, 신분이 낮을수록 생활에 대한 불안이 많다고 볼 수 있다. 상층부는 이전보다 개혁개방의 후유증이 많아 더 많이 숙청되고 있기 때문이다.¹⁰⁸⁾ 해외생활을 많이 하는 등 특별한 신분에 있는 사람은 감시원을 더 많이 의식한다고 한다.¹⁰⁹⁾

108) 이임영 (36세, 금수산의사당경리부, 1997.12 귀순) 증언.

109) 김철대 (47세, 1997.8 탈북, 1999.1 귀순, 과학원 수리공학연구소 연구사) 증언.

VI. 북한주민의 자아방어기제의 발달

북한에서는 집단이 개인에 우선하고 개인에 대한 통제와 억압이 일상적이기 때문에 개인주의적 차원의 자기보존의 본능이 고도로 발달하였다. 억눌린 감정을 관리하여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는 대체적인 방법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살펴본다.

1. 자아억압(repression)

한스-요하임 마즈는 인간의 기본욕구가 충족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불안, 분노, 체념, 좌절은 비참한 내면적 궁핍 상황이기 때문에 인간은 이 비참한 상황이 의식의 표면에 떠오르지 않도록 무의식 깊숙히 망각의 공간에 묻어 차단시키려 한다고 보았다.¹¹⁰⁾ 프로이트의 자아억압의 개념과 유사하다.

북한에서 가장 발달한 자기방어기제의 개념은 자아억압이라고 볼 수 있다. 강력한 통제하에서 생존하는 길은 자기의 불만 표출을 억제하는 수밖에 없다. 북한주민들은 경제난의 원인과 책임자를 자꾸 신경쓰면 스트레스가 생기니까 그런 생각을 거두어 치우고 자기 조건에 맞게 살고자 한다고 한다. 자각하면 더 화가 나므로 자각을 앓고 사는데 그것이 습관이 되어 그런대로 살아간다고 한다.¹¹¹⁾ 북한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자주하는 말이 말조심하라는 것이라고 한다. 언행을 조심하는 것이 최선의 자아방어인 셈이다. 북한체제의 엄격한 감시와 통제의 사회심리적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110) 한스-요하임 마즈, 앞의 책, p. 303.

111) 김철대 (47세, 1997.8 탈북, 1999.1 귀순, 과학원 수리공학연구소 연구사) 증언.

2. 불만대상 전가(projection)

북한 주민은 체제와 최고통치자에 대한 불만을 직접 표출하지 못하고 불만과 분노를 다른 대상으로 분출한다. 프로이트의 불만대상 전가(projection)의 개념에 근접하는 현상이다. 북한주민의 불만대상 전가는 앞에서 지적한 대로 억압된 불만과 짜증을 주변의 개인관계로 표출한다. 스트레스는 정치적 이유에서 쌓이는데 친구를 대상으로 감정이 폭발한다고 한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싸움을 자주한다고 한다.¹¹²⁾

둘째, 정치범으로 연루되지 않으면서 불만을 표출하는 방식이 간부들에 대한 불만표출과 적대행위이다. 정치적으로 성역을 피하면서 경제난과 식량난에 대한 책임을 지도부에 돌리는 방식이다. 이러한 자아방어기제의 논리는 김정일은 올바른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중간간부들이 김정일의 정책을 올바르게 수행하지 않고, 허위보고하며, 부정부패를 많이 하기 때문에 경제난이 왔다는 것이다.

주민들도 속으로는 김정일에게 1차적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 1994년 김일성 사망이전에는 식량난의 원인을 날씨 탓, 미국 탓이라고 생각했으나 이제는 대부분 김정일 탓으로 생각한다고 한다. 인민들은 김정일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으나 표현을 못하고 반발을 못한다. 생사를 같이 하는 사람끼리만 할 수 있는 말이라고 한다.¹¹³⁾

그런데 속마음과는 달리 말로 표현할 때와 실제 행동은 중간간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간부들에게 모조리 화살이 집중되고 있다.

112) 차철명 증언.

113) 서철영(25세, 청진철도국 남양분국 세천역 신호원, 1999.8.14 귀순) 증언.

실제로 주민들의 간부에 대한 적대감은 매우 심한 편이다. 간부들에 대한 평가가 매우 부정적이다. “노동자 피만 빨아 먹는 놈들, 자기 이속은 다 챙기며, 노동자들은 조금만 잘못하면 엄하게 다스리는 놈들”이라고 칭하면서, 세상 바뀌면 간부들은 다 죽을 것이라고 보았다. 주민수에 비해서 소수이기 때문에 맞아 죽을 것이라는 평가이다. 점잖은 간부는 1% 정도밖에 안된다고 지적했다.¹¹⁴⁾ 인민대중들의 간부에 대한 적대감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민들은 또한 김정일의 통치 수법으로서 인민은 누르고(교육수준이 낮으면 주먹으로), 지식인은 회유하며(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은 선물과 협박으로), 권력층에게는 특권을 준다는 것이다.¹¹⁵⁾ 이러한 평가는 간부를 특권계급으로 인식하는 일반주민들의 정서를 대변한다.

주민들의 간부에 대한 적대행위의 예로서 다음의 두가지를 들 수 있다. 외교부 관료들이 간부들에 대한 인민들의 분노 때문에 출근시 적위대복을 입고 출근했다가 사무실에서 옷을 갈아 입는다고 한다.

탄광의 경우 중앙당에서 간부들이 선전교양 나오면 돌아가라고 노골적으로 말한다고 한다. “쌀을 가져와서 내뭍에 묻은 석탄가루나 씻어내라”고 한다는 것이다. 중앙당 일군들이 해당 지방에 가서 선전 사업을 할 경우 인민들의 반감이 심한 정도가 마치 일체시기 직후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말한다고 한다. 그래서 당선전사업은 비공개적으로 요소요소에 들어가서 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으며, 핵심 일군만 모아 놓고 강연하는데 그친다고 한다.¹¹⁶⁾

농촌에서는 농민들의 반감 때문에 농촌위원회 부위원장들이 농촌 현지에 나가지가 무섭다고 한다. 인민들의 반감이 엄청나게 고조되어

114) 서철영(25세, 청진철도국 남양분국 세천역 신호원, 1999.8.14 귀순) 증언.

115) 이임영 (36세, 금수산의사당 경리부, 1997.12 귀순) 증언.

116) 이수동(이탈리아주재 북한공관원, 1998.2 귀순) 증언.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주민들이 이동하면서 장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철도안전원의 단속을 많이 받게 되는데 최근 북한주민들은 철도안전원, 시장을 기동순찰하는 안전원을 제일 미워한다고 한다. 군인들도 주민들의 기피 대상이다. 군대가 지나간 자리는 남는 것이 없다고 할 만큼 닳치는 대로 훔쳐 간다고 한다. 이러한 군인을 토비라고 부른다고 한다.¹¹⁷⁾

주민들의 간부들에 대한 적대감 때문에 간부들이 처신하기가 매우 어렵다. 김정일은 자기 정책은 옳은데 하위 간부가 제대로 따라주지 못한다고 간부들을 자주 숙청한다고 한다. 간부들과 권력기관이 흔들리기 시작했다고 한다. 위에서 억누르고 밑에서 저항하기 때문에 간부를 해먹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¹¹⁸⁾

3. 대체보상: 절도 및 물질주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면 만성적 긴장상태가 유발된다. 한스-요하임 마즈는 이 긴장 상태는 어떤 방식으로든 대체보상(displacement) 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유도되고 무마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정신병에 걸리게 되고 육체적으로 중병을 앓게 되거나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고 보았다.¹¹⁹⁾

국가의 배급이 중단되고 식량조달이 어렵게 되자 가장 즉각적으로 나타난 대체보상 노력은 국가재산 및 공장 생산물에 대한 절도이다.

117) 김난애 (36세, 과학기술위원회 국가품질감독원 사무원, 1997.10.19 귀순) 증언.

118) 이수동(이탈리아주재 북한공관원, 1998.2 귀순), 성환영 (34세, 조선인 민경비대 사회안정성 군의관) 증언.

119) 한스-요하임 마즈, 앞의 책, p. 99.

사회주의 국가의 인민대중은 국가를 필요하면 이용하고 착취할 수 있는 그 무엇으로 간주한다. 비공식영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자원은 모두 국가로부터 차용해오거나, 훔쳐오거나 아니면 횡령한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국가는 사적 영역을 침범하고 대중은 공적 영역을 사유화하는 것이다.¹²⁰⁾ 한스-요하임 마즈는 이러한 현상을 결핍을 보상받기 위한 집단적인 말없는 공모라고 보았다.¹²¹⁾

북한주민들은 경제난과 물질적 결핍상황에서 오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광범위한 대체보상노력에 탐닉하고 있다. 주민들은 국가재산과 공장 생산물에 대한 줌도독질을 많이 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장에서 무언가를 훔쳐온다. 그러나 그것은 발각되지도 않고 따라서 처벌도 할 수 없다고 한다.

한 귀순자는 국가재산의 절도에 대하여 김정일이 싹을 띄웠다고 지적했다. 70년대 중반 후계자로 지목되면서부터 간부들에게 선물을 주는 버릇이 생겼다고 한다. 그런데 하급 간부와 인민들은 선물을 받지 못하므로 자기 스스로 물건을 가지고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선물을 받는다”고 하면서 훔치기를 한다고 한다. 인민들의 사고 방식이 그런 식으로 발달해 간다고 한다.¹²²⁾

군내부에도 횡령이 많다. 군대에서 유행하는 은어의 하나는 “연대장은 연속적으로 먹고, 대대장은 대대적으로 먹고, 군단장은 군말없이 먹고, 중대장은 중요한 것만 먹는다”이다.¹²³⁾

둘째, 사회주의 이념에 대한 신뢰 상실에 따라 정신적 갭이 발생할 때 대체적인 이념은 물질이 된다.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갭을 극단

120) Yanqi Tong, op.cit., p. 220.

121) 한스-요하임 마즈, 앞의 책, p. 80.

122) 임복신 (48세, 제지공장 책임기사, 1998.10 귀순) 증언.

123) 이임영 (36세, 금수산의사당 경리부, 1997.12 귀순) 증언.

적인 물질주의가 채우게 된다. 정신적 공허와 물질적 결핍에 대한 대체보상인 것이다. 사회주의 신념에 대한 위기로 야기된 정신적 간극을 메울 수 없다면 공중도덕은 더욱 무너지고 극단적 물질주의가 수반되기 마련이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에서도 많이 나타났다고 한다.¹²⁴⁾

4. 이기주의

개인생존의 집단주의적 보장이 작동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기생존을 위한 방어기제는 자기 스스로 자기이익을 지키는 것이다. 북한에서 공식이념은 집단주의이나 실제 생활은 집단주의보다는 이기주의에 가깝다. 실제 백성들 속에서 자기 가족이 죽는 현실에서 집단이 자기를 돌보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¹²⁵⁾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주민들은 이제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자기 살 길은 자기가 알아서 해야 한다는 것을 이제는 실제 경험을 통해서 검증되었으니 다르게 생각할 것이 없다는 것이다. 경제가 회생되어도 자기 살 궁리는 자기가 해야 한다는 의식은 절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대부분 귀순자의 증언내용이다.

북한주민의 집단주의에 대한 신뢰가 상실되고 개인주의가 심화된 결과 타인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행위양식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소속감과 애정에 대한 욕구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밖에 모른다고 한다.

이기주의는 일반주민뿐만 아니라 간부들도 마찬가지이다. 김정일, 중앙당, 기층 당조직까지 모두 이기주의에 빠져 있다고 한다. 간부들

124) Yanqi Tong, 앞의 글 p. 223.

125) 김철대 (47세, 1997.8 탈북, 1999.1 귀순, 과학원 수리공학연구소 연구사) 증언.

이 국가의 혁명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기 살 궁리만 하는 철저한 개인 이기주의이다. 실제 당을 발전시키고, 당의 요구에 맞게 당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다. 당이 그러하니 보위부, 안전부도 그렇게 살며, 군대도 그렇게 산다고 한다.¹²⁶⁾

이기주의의 극단적인 사례는 이혼과 가족해체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에서 볼 수 있다. 집단의 가장 기초단위인 가족마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이혼이 많은 이유는 경제적 궁핍에 있다고 한다. 경제난으로 남편들이 무력해진 것이 갈등의 단초가 된다고 한다. 남자들은 직장과 조직에 얽매어 있으니 당조직의 통제가 심해서 움직이지 못하지만 부인들은 암시장을 통하여 생계를 꾸릴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북한말로 표현하면 “남자는 사회주의한다고 하면서 직장에 출근하고 여자들이 장사다닌다”는 것이다. 부인이 장사하는 집은 먹고 살고, 그렇지 않은 집은 굶어 죽는다는 것이다. 김책에서 살았던 김철대의 경우 “김책에서 색시(식량)와 구루마(딸감)만 든든하면 산다”는 말로 여자의 경제적 역할을 표현하였다.¹²⁷⁾ 남자는 집에서 집 지키는 멍멍이라고 표현한 사람도 있다. 부인이 시장에 나가서 장사해서 먹고 살기 때문에 남자들의 발언권이 없으며 전통적인 남녀간 역할관계가 붕괴되어 갈등이 생긴다고 한다.¹²⁸⁾

부인들이 가정을 꾸리기 힘이 드니 가출을 많이 하는 것도 가정해체의 한 원인이 된다. 자기 눈으로 자식 굶어죽는 것을 못보겠다고 가출하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타인의 돈을 빌리고는 갚을 길이 없어 도망가기도 한다고 한다. 순박하고 착한 사람들이 돈맛 들어서 부모

126) 임복신 (48세, 제지공장 책임기사, 1998.10 귀순) 증언.

127) 김철대 (47세, 1997.8 탈북, 1999.1 귀순, 과학원 수리공학연구소 연구사) 증언.

128) 성환영 (34세, 조선인민경비대 사회안정성 군의관) 증언.

도 모르는 인간성으로 변질하였다고 북한을 비난하고 있다.

가족이 해체되어 집나온 아이나 어른을 일컫는 꽃제비가 많다고 한다. 황장엽 전 노동당비서의 증언에 의하면¹²⁹⁾ 가정에서는 부모들이 아이들을 먹여살릴 수 없어지자 그저 얻어 먹기라도 하라고 밖으로 내보내는 일이 속출했다고 한다.

5. 범죄

자기방어기제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는 범죄이다. 극단적인 결핍상태에서는 범죄를 통하여 생필품을 획득하게 된다. 절도, 강도가 가장 흔한 범죄이며 이 과정에 살인도 빈발한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경제의 쇠퇴와 더불어 범죄는 기승을 부렸다. 원래 범죄는 자본주의의 유산이며 사회주의에는 범죄가 없는 것으로 선전했다. 사회주의는 마르크스주의 교리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는 사회주의 도래와 더불어 쇠퇴했으며 공산주의와 더불어 완전히 소멸한다고 보았다. 교리와 현실간의 모순 때문에 소련당국은 범죄를 거론하는 것을 기피했다.¹³⁰⁾ 사회주의에서 범죄율이 낮기는 하지만 이것은 엄격한 사회 통제를 통하여 개인의 자유를 억압한 대가였다. 그러나 일반주민은 물론 당간부, 안전기관의 간부들이 범죄조직과 결탁해 있었다는 것은 고르바초프의 범죄정책의 변화를 통해서 드러났다. 고르바초프는 보수적인 권력엘리트들을 숙청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범죄의 실상과 엘리트의 부정부패를 공개하였던 것이다. 글라스노스트

129) 황장엽, 「나는 역사의 진리를 보았다: 황장엽 회고록」 (서울: 한울, 1999), p. 285.

130) Louise I. Shelley, "Crime in the Soviet Union," in Anthony Jones, Walter D. Connor, David E. Powell eds., *Soviet Social Problems* (Boulder: Westview Press, 1991).

이전에는 소련학자들은 범죄는 과거 부르조아시대의 유산이며 외부에서 들어온 자본주의의 영향이라고 주장하면서 사회주의 체제 외부의 탓으로 돌렸다.¹³¹⁾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고르바초프시대의 소련학자들은 사실을 말하였다. 어려운 생활여건이 알콜중독, 가족갈등을 야기시키고 범죄와 일탈행위를 야기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어려운 가정환경,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는 학교문제 등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많은 가정에서 일탈행위, 알콜중독, 아동학대가 일상적이다. 범죄문제를 공개하기 전에는 범죄문제의 정도라든지 당간부와 범죄조직이 연계된 사실 등을 잘 모르고 있었다. 범죄문제의 공개는 시민들이 안전에 대하여 신뢰를 상실했으며, 체제의 통합문제도 의구심을 갖게 되었다. 소련 당국은 사법기관을 정당화하는데 문제가 생겼다. 범죄문제의 원인에 대한 이러한 사실 인정은 사회주의 우월성의 이념을 여지없이 분쇄시켜 버렸다.¹³²⁾

북한에서 범죄문제는 소련의 경우와 다르지 않다. 범죄가 경제난과 더불어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되었다. 김일성 사망후인 1995년을 기점으로 북한의 사회질서는 매우 문란해졌다고 한다. 매우 원시적이고 잔인한 살인사건이 자주 일어난다고 한다. 주로 도적질하는 사람이 자기 얼굴을 감추려고 죽인다는 것이다. 사람목숨이 너무 천시되어 걸핏하면 사람을 죽인다는 것이다.¹³³⁾ 북한에서 범죄의 1순위는 군대이며, 2순위는 젊은층이라고 한다. 극한적 상황에서 참을성 없는 젊은이와 무서울 것 없는 군인들이 마구 날뛴다는 것이다. 군인들이 도적질, 살인, 강간, 차치기 등의 범죄를 많이 저지른다고 한다.¹³⁴⁾

131) Ibid., p. 255.

132) Ibid., pp. 254~255.

133) 이재 (37세, 군예술선전대 작가 겸 연출자, 1999.3 귀순) 증언.

피해본 민간인이 어느 부대 누구인지 신고하면 그 군인은 엄하게 처벌받게 되어 있다고 한다. 그래서 도둑질하다가 민간인에게 발각된 군인은 민간인을 살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¹³⁵⁾

6. 이중성 및 심리적 거부

이중성

욕구불만과 정치적 억압 사이에서 발달하는 자아방어기제의 하나는 실제 감정을 숨기고 정치적으로 요구되는 허위감정을 표면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북한에도 이런 현상이 많다. 북한주민들에게서 실제감정과 조작된 감정을 구분해야 한다. 실제감정은 매우 순수하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감정에는 조작된 감정이 많다는 것이다. 공식적 석상에서 하는 일, 사석에서 하는 일이 완전 별개라고 한다. 가령, 사상 학습시간의 태도와 10분간 휴식시간에 하는 말과 표정은 완전히 다르다고 한다. 북한의 체제에서는 두 개의 얼굴을 가져야 생존이 가능하다고 한다.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이러한 경향은 심하다고 한다.

또 다른 예는 김일성 아버지가 있는가 하면 실제 우리 아버지는 따로 있다는 것이다. 태어날 때부터 이런 식으로 이원화된 사고방식이 몸에 베여있다고 한다.¹³⁶⁾ 국가는 사회주의를 고수하지만 인민들은 자본주의를 하고 있고, 국가는 집단주의를 고수하지만 인민들은 개인주의에 탐닉해있다. 인민들이 국가의 간섭을 받으면서도 자기 나름대로 자본주의식으로 산다. 이것은 사회주의 붕괴이후 지난 10년간

134) 임복신 (48세, 제지공장 책임기사, 1998.10 귀순) 증언.

135) 이재 (37세, 군예술선전대 작가 겸 연출자, 1999.3 귀순) 증언.

136) 이재 증언.

의 삶의 체험을 통해서 습득한 것이다. 일찍부터 장사한 사람은 괜찮게 살지만 당만 믿고 사는 사람은 죽게 되었다. 조총련, 중국 친척에게서 장사밑천을 얻어서 장사한 사람이 가장 잘 사는 계층이 된 것이다. 자본주의가 체제내에서 자생적으로 발달하고 있다.

통치이념인 주체사상도 당국의 의지와는 다르게 이해되고 있다. 정치학습 교원의 말끝마다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 자기운명을 개척하는 것도 자기자신”이라고 하면서도 행동으로 연결시켜주지 않는다. 주민들은 노동당이 나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등 노동당이 운명의 주인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주체사상의 기본명제는 “한마디로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다, 자기운명을 개척해가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 다시 말하여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해가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말은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고 자기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라는 것만 생각한다고 한다. 자기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라는 것은 자신이 스스로 식량구입하는 일에 전력을 다해서 먹고 살아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한다는 것이다.¹³⁷⁾

북한의 통치이념인 주체사상이 역효과를 내고 있는 셈이다. 황장엽 귀순이후 주체사상에 대한 홍보가 뜸해졌다고 한다. 이제는 김정일 어록, 문헌을 중심으로 교시한다고 한다.

심리적 거부

사회주의 시민들이 개발해낸 또 하나의 자아방어기제는 기존체제에 대한 심리적 거부이다. 조직적 저항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심리적

137) 서철영(25세, 청진철도국 남양분국 세천역 신호원, 1999.8.14 귀순) 증언.

거부라는 대안을 사용하는 것이다. 정치적으로 기소되지 않을 범위내에서의 사보타지를 하는 셈이다. 자유가 이미 제한된 상황에서 개인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적어도 반항적인 무관심이다. 만연되어 있던 이같은 거부태도로 인해 사회주의체제가 점차 약화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적어도 노동시간의 3분의 1이 이같은 방식으로 소모되거나 아니면 사적인 일을 하는데 이용되었다고들 한다. 의무노동시간 동안 장사를 하거나 쇼핑을 하러 가는 일은 외적 결핍 때문에 종종 필요했지만 반드시 그 때문만은 아니라고 한다. 그것은 자기 국가의 이익에 대한 공격적 무관심을 동시에 드러냈던 것이다.¹³⁸⁾

북한주민들의 노동거부는 잘 알려진 사실이다. 북한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없다. 집단노동을 나가면 삼을 땅에 박아 놓고 발딛고 서서 말장난으로 시간을 보낸다고 한다. “요령주의, 눈치놀음, 땡땡이”가 발달해 있다고 한다. 지금 상황에서 땀흘려 일하는 사람은 없으며 자발적인 충성심으로 땀흘리며 뛰는 자가 없다고 한다. 다만 입당을 앞두고 있는 자들만 열심히 하는 편이라고 한다.¹³⁹⁾

북한의 노동자들은 무단결근과 이탈이 많다. 가는 곳마다 검문소가 있고, 열차간에도 검열하고, 숙박하는 곳에도 숙박등록 수단이 있지만 그것으로 감당하지 못한다고 한다. 출근 안하면 쌀도 안주고 휴가에서 제외하며 3일이상 무단결근하면 안전부가 개입하지만 대부분의 공장 노동자들은 무단결근이 많다고 한다. 증명서를 돈주고 만들기도 하고 뇌물 등 여러수단으로 검문을 통과한다고 한다.

북한주민들의 거부태도는 노동현장뿐 아니라 사회질서 부문에서도 나타난다. 사회통제를 강화하지만 잘 안된다. 사회안전성의 범죄 처리 능력이 형편없는 수준이다. 신고체계가 잘되어 있으나 통신, 기

138) 한스-요하임 마즈, 앞의 책, p. 110.

139) 임복신 (48세, 제지공장 책임기사, 1998.10 귀순) 증언.

동력이 없기 때문이다. 사회안전성 자체가 느슨해진 것은 아니라고 한다. 사회안전성이 뇌물을 받는 등 부패가 많으나 뇌물을 주는 대상은 봐주지만 처리할 것은 다 처리한다는 것이다. 사회통제가 무너지는 초기단계이 있으나 뇌물받고 배부른 사람들이 떠나는 것이다.¹⁴⁰⁾

140) 임복신 (48세, 제지공장 책임기사, 1998.10 귀순) 증언.

VII. 사회적 성격의 유형

1. 순응형

억압적 사회구조는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억압적 사회구조에서 형성된 경색된 성격은 외부의 강요에 의해, 자신의 내적 긴장에 의해 자신에게 허락되어 있거나 요구되고 있는 궤도에서만 행동하는 경향이 많다. 이런 성격을 순응형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한스-요하임 마즈는 억압적 사회구조에 의해서 형성된 성격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억압적 사회구조에서 인간은 마치 선로위에 얽혀있듯 생활하고 좌우로 탈선해서 갈 수 없는 것이다. 기형으로 변질된 행동은 비정상적 주위세계 상황에 적응한 것으로 나타날 때 눈에 띄지 않게 된다. 그 때문에 그 같은 정신적 장애는 '증상없는 노이로제'로 표현될 수 있다. 그들은 계산할 수 있을 정도로 확고히 고정되어 있다. 그들은 경직된 사회체제에서 꼭두각시 및 건축용 석재가 되었다. 이 체제는 권력과 공포를 수단으로 자유로운 발전은 어떤 것이나 질식시켰고, 소용돌이치는 삶을 단조로움과 생기없는 창백함, 황량한 지루함속에 굳어버리게 했다. 장애현상을 더 이상 알아볼 수 없거나 혹은 알아보려 하지 않는다. 이러한 장애는 새로운 상황에의 적응의 요구가 있을 때 비로소 스스로 감지될 수 있다.¹⁴¹⁾

북한주민의 모습이 다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북한사회에서 체제순응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그 이념형으로 교육받았다고 볼 수 있다.

북한 귀순자들은 순응형에 속하는 집단은 어린 학생들, 해외경험이

141) 한스-요하임 마즈, 앞의 책, pp. 116~118.

없는 자 중에서 의식수준이 낮은 집단과 간부의 일부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북한체제의 사상교육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사람들이다. 해외경험이 있어도 나이 어린 아동의 경우도 의식이 안개어 있다. 가령, 탈북하여 중국을 헤매고 다니는 아이가 남한 TV기자와 인터뷰한 내용에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 그 아이는 아버지는 폐렴에 걸려 죽었고 어머니는 자살했으며 아이들만 남았는데, 동생을 북한에 두고 혼자 중국에 왔다고 한다. 이밥을 앞에 두고 목이메었다고 말했다. 커서 뭐가 되고 싶으냐는 질문에 군인이 되겠다고 대답했는데 그 이유는 “미국놈 때문에 우리가 못살고 있으니 미국놈 때려부수어야겠다”는 것이다. 탈북자 아이의 경제난에 대한 인식도 최고책임자 김정일 때문에 못산다고 대답하지 않고 군당책임비서 때문에 못산다고 대답하였다.

북한의 귀순자들은 김정일을 믿는 사람이 30~40%정도 된다고 평가한다.¹⁴²⁾ 이들은 김일성 체제로부터 교육받은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 북한체제가 50년간 시행한 교육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사람들이다.

하위 간부를 지낸 한 귀순자는 동독이 서독에 흡수통일되었을 때 충격이 컸으며 북한당국에서 교육시킨 내용에 공감했다고 한다. 가령, 동독의 간부들이 길거리 음식장사 등으로 전락한 것을 녹화물로 만들어서 해설하면서 방영했는데 자기도 그것보고 “미우나 고우나 이 제도 고수해야 겠구나”하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한다. 남한주도로 통일되면 남한에 먹힌다고 생각하지 않고 미국의 식민지화된다고 인식한다는 것이다. 식민지화되면 북한주민은 ‘빨갱이’로 몰려 다 처단된다고 인식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인식은 6·25 전쟁 시기 국군에 한

142) 김철대 (47세, 1997.8 탈북, 1999.1 귀순, 과학원 수리공학연구소 연구사), 이입영 (36세, 금수산의사당 경리부, 1997.12 귀순) 증언.

번 점령되었을 때 술하게 피살되었던 것으로 선전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국방력 강화에 예산을 돌리는 것을 응당한 것으로 인식하며, 경제난이 심화되어도 정치 잘못한다는 것을 표현하지 못한다고 한다.¹⁴³⁾

고위간부층과 출세지향적 당원들도 여기에 포함된다. 남한에 귀순한 어떤 하위간부는 김정일에 대한 비방발언 때문에 정치범으로 몰려 평양에서 김책으로 추방된 적이 있었는데 다시 평양으로 복직되기를 기다리며 충실하게 살았다고 한다. 김정일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간부들은 돌아서서는 속에 있는 말을 좀 하지만 전면에서는 좋게 평가하며 나쁘다는 말은 절대 안한다고 한다.¹⁴⁴⁾

그러나 순응형에 속하는 사람들도 중간간부가 잘못한다는 인식은 절대다수의 의견이라고 한다. 북한주민들은 간부들이란 권력이 있을 때는 그것으로 살아가고, 간부에서 떨어졌을 경우까지를 생각하고 미리 축재를 한다고 생각한다. 당일군, 보위부, 안전부원은 상업계통을 장악하고 국정가격으로 사고, 공장기업소를 장악하여 축재를 한다고 한다. 간부의 급수가 높을수록 아들, 손자까지 생각하며 축재한다고 한다. 북한의 간부들이 현제체제에 순응하고 있는 것은 결국 간부들은 현체제에서 기생하고 있기 때문이다.¹⁴⁵⁾

2. 심리적 이반형

북한체제에 체제순응형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반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심리적 이반자가 많다

143) 김철대의 증언.

144) 임복신 (48세, 제지공장 책임기사, 1998.10 귀순) 증언.

145) 임복신 (48세, 제지공장 책임기사, 1998.10 귀순) 증언.

는 것은 정권의 정당성이 쇠퇴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주의정권은 두가지 방식의 정당성을 사용했다. 하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라는 이데올로기이며, 다른 하나는 사회경제적 실적이다. 사회주의 정권의 정당성의 유지는 대중이 사회주의 이념을 믿는 정도와 사회경제적 혜택을 대중들에게 줄 수 있는 정도에 달려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는 이데올로기와 사회경제적 정당화의 측면에 있어서 심각하게 침식되었다. 사회주의의 이론과 실제 사이의 커다란 괴리는 대중의 체제에 대한 심리적 이반의 근원이 되었다. 대중 이익의 무시, 권력의 부패, 정치권력의 남용, 관료들의 종신제 임용 등 모든 것이 대중들에게 무력감을 안겨주었다.¹⁴⁶⁾

북한에서도 사회주의의 두가지 정당성이 실추된 것은 다른 사회주의와 차이가 없다.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만 해도 사회주의의 정당성은 살아있었던 것처럼 보인다. 김일성이 살아있는 한 굶어 죽지 않는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러나 김일성 사망이후 반발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현재에 대한 좌절감, 미래에 대한 희망상실이 그 원인이 된다. 일반대중들은 물론이고 인태리 간부들도 김정일로는 안된다는 생각이 많아졌다고 한다. 김정일이 인민을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이냐는 의구심이 많아졌다고 한다.¹⁴⁷⁾

북한주민들은 처음에는 김정일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했기 때문에 기대가 컸다고 한다. 후계자로서 완벽한 것으로 인식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김정일이 일하는 것을 보고 실망했다는 것이다. 김일성 사후 인민들이 굶어 죽어도 대책없이 군대만 찾아다니면서 조국통일한다고 하더라는 것이다.

146) Tong, op.cit., pp. 216~217.

147) 이수동(이탈리아주재 북한공관원, 1998.2 귀순) 증언.

최근들어서 고위급 상층부 간부부터 밑의 노동자, 농민까지 하나로 맥이 통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것은 김정일 시대에 와서 경제가 망하고 나라가 망했다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김일성 사후 김정일에 대한 기대가 완전히 무너졌으며 김정일 정권에 대한 희망을 갖지 못한다고 한다. 간부들은 알면서도 현재의 생활이 상대적으로 특혜를 받으니 외적으로 충성하며 노동자, 농민 하층은 고달프면서도 어쩔 수 없이 참는다고 한다.¹⁴⁸⁾

북한주민들이 절대적으로 궁핍한 현실을 체험 한데서 나오는 것이다. 주민들사이에 통하는 사람끼리 하는 말이 현실을 매우 현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망했다는 것이 다른 것이 망한 것이 아니다. 먹는 것이 없고, 공장기업소가 못돌아가는 이것이 망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밑을 데가 있나? 자기 살 궁리는 자기가 해야 한다.¹⁴⁹⁾

이러한 인식과 더불어 북한 주민들은 장사, 도둑질, 범죄의 길로 전락한다고 한다. 공장 기업소의 물건을 훔치거나 개인물건을 강도질하는 쪽으로 전락되었다고 한다. 북한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이 사회가 좋은 사람들 다 버렸다, 범죄를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범죄하고 나쁜 길로 빠졌다”고 말한곤 한다고 한다.

“먹을 것이 없으니 꼴이 빨리 돌아간다(의식이 빨리 깬다)”¹⁵⁰⁾는 북한 주민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절대적인 궁핍이 북한 정권에 대한 비판의식을 일깨운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다.

절대적인 궁핍외에도 북한 당국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선전을

148) 임복신 (48세, 제지공장 책임기사, 1998.10 귀순) 증언.

149) 임복신 (48세, 제지공장 책임기사, 1998.10 귀순) 증언.

150) 서철영(25세, 청진철도국 남양분국 세천역 신호원, 1999.8.14 귀순) 증언.

많이 하기 때문에 속았다는 느낌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사상은 의식주와 연결되어 있는데 의식주가 전혀 사상을 따르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북한주민도 사람인 만큼 그것을 연결시키지 못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밥을 못먹을 정도로 궁핍한데 통제만 하니까 분노가 생긴다는 것이다.

북한주민들은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니까 민중이도 의견을 가진다”는 말로 주민들의 의식각성을 강조한다. 내놓고 사회적으로 이야기하지는 못해도 친척 등 가까운 사람끼리는 말을 다 한다고 한다. 보위부와 안전원 중에 악질도 있지만 대다수는 자리만 지키고 기회가 오기만 기다린다고 한다. 이임영의 경우 보위부 및 안전원 친구가 많은데 거의 다 그렇게 행동한다고 한다. 가령, 검열이 나오면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준다고 한다. 알려주지 않으면 ‘비행’에 대하여 최소한 못본척 한다고 한다. 수십년동안 억압받고 속아왔기 때문에 이제 의식이 깨었다는 것이다. 한 귀순자는 “노동자라고 해서 무지렁이가 아니다, 무지렁이도 수십명 모이면 제갈량보다 낫다”는 말로 북한주민이 사상교육을 많이 받았지만 현실을 꿰뚫어보는 의식은 있다는 것이다.¹⁵¹⁾

북한주민은 심리적으로 갈등에 휩싸인 상태라고 한다. “이렇게 열심히 의견내지 않고 살아왔는데 이제 짓눌리고 헛되었다, 이것은 아니로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식상태를 흔히 북한에서 “이제 알 것은 다 안다”는 말로 표현한다고 한다. 또한 어떤 계층은 이미 심리적 갈등에서 벗어났고 눈치보는 시기라고 한다. 의식은 이미 바뀌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각성된 의식을 표현하는 방법은 “악밖에 안남았다”고 말하

151) 이임영 (36세, 금수산의사당 경리부 중국 단동주재 부대표 3등서기관, 1997.12 귀순) 증언.

며, “일등 바보(고지식 또는 충실파)는 이미 죽었다, 올해는 이등 바보 죽을 차례, 내년에는 3등 바보 죽을 차례”라고 한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을 두고 “말반동은 다되었다”고 한다. 북한에서 이제 말반동은 너무 많아서 다 잡아갈 수 없고 행동 반동만 잡아간다고 한다. 시위, 빼라, 선동을 하는 사람만 잡아간다고 한다. 주민들의 70% 정도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한다. “무지렁이 림펜프로레타리아” 5% 미만과 권력집단 25~30%만 의식각성에서 제외된다고 한다.¹⁵²⁾ 그러나 간부들은 불만을 앞에서 이야기하지 못한다고 한다. 술한잔 먹어도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다”, “어떻게 이 나라를 끌고 갈지 모르겠다” 정도로 표현한다고 한다.¹⁵³⁾

김정일은 또한 북한 인민들의 이러한 의식상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인민들을 경계한다고 한다. 그래서 귀순자들은 대체로 김정일이 개혁·개방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하였다.

3. 파괴적 현상탈출 심리형

상당수의 북한주민들 가운데 극도의 절망감에서 나오는 파괴적 탈출심리가 표출되고 있다. 단순히 심리적 이반에 그치지 않고 김정일에 대한 불만의 감정에 그치지 않고 언행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인 현상도파적인 심리가 표출되는 것이다. 두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전쟁이나 팍 나버려라”라는 언행을 자주 사용하는 집단적 심리이다. 이것은 전쟁을 해서라도 돌파구를 마련하자는 대안찾기 심리이며, 지배계급에 대한 복수심리가 묻어 있는 언행

152) 차희숙 (35세, 북한군대위, 군부대 정치지도원, 1997, 12취순) 증언.

153) 임복신 (48세, 제지공장 책임기사, 1998.10 취순) 증언.

이다. “굶어 죽으면 어떻게 총맞아 죽으면 어떻게, 지금보다는 나은 것이다, 누가 이기든 먹고 살자”라고 말하곤 한다고 한다.¹⁵⁴⁾

많은 사람들의 심리상태가 이와 같이 이판사판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될대로 되라, 망하고 싶으면 망해라, 전쟁하겠으면 전쟁하라, 전쟁나면 중국, 러시아로 뛰겠다”는 식의 심리이다.

이러한 발언이 나오는 것은 94년경부터라고 한다. 80년대는 “왜 이런가” 정도로 생각했으나 이제는 너무 속아 살아왔다고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에 민심이 방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¹⁵⁵⁾

황장엽 전 당비서도 그의 자서전에서 비슷한 심정을 표출한 바 있다. “나 역시 대부분의 주민들처럼 때때로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전쟁이라도 일어나 이놈의 세상, 빨리 끝장이라도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었다”고 진술했다.¹⁵⁶⁾

주민들이 전쟁이나 나버려라고 생각하는 배경은 북한당국이 사회통합을 유지하고자 전쟁분위기를 많이 고취하였기 때문에 전쟁을 항상 현실적인 가능성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지도부에서 지속적으로 전쟁준비를 시키고 전쟁하면 이긴다고 선전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전쟁이라도 한번 하자고 생각하는 것이다.

고위급은 전쟁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지만 일반주민들은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드니 전쟁이나 하자고 주장한다.¹⁵⁷⁾

북한당국은 “이 고난은 미국놈 탓”이라고 반미교양을 함으로써 책임을 전가하고자 한다. 즉, 미국이 이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를 말살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항복하여 미제의 노예로 살아서는

154) 정석영 (23세, 함북도 인민학교 교원, 1999.1 귀순) 증언.

155) 이임영 (36세, 금수산의사당 경리부, 1997.12 귀순) 증언.

156) 황장엽, 나는 역사의 진리를 보았다: 황장엽회고록, (서울: 한울, 1999), p. 277.

157) 임복신 (48세, 제지공장 책임기사, 1998.10 귀순) 증언.

되겠느냐고 반미감정을 부추긴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주민들은 그러면 전쟁이라도 해서 너 죽고 나 죽자고 말하곤 한다고 한다. 이러한 발언에는 두가지 의미가 담겨있다고 한다. 첫째는 이 체제가 확 망해버려라는 체제에 대한 반항심이며, 둘째는 미국이 우리를 못살게 구니 진짜 한번 해보자라는 반미감정이라고 한다.¹⁵⁸⁾

백성들은 이 정권이 꼭 무너져라는 심리가 많지만 함부로 그런 식으로는 감정표현을 못하고 “전쟁해서 미국놈 몰아내자”는 식으로 표현한다.¹⁵⁹⁾

두번째 유형의 파괴적 현상탈출 심리는 실제 국외로 탈출하는 행위로 연결된다. 북한주민들이 국경을 넘는다는 것은 엄청난 모험임에도 많은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 식량을 구하러 월경을 한다. 북한주민들의 많은 수가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탈출하는 것은 식량구하기 이상의 정치적 의미가 있다. 함흥에서 온 한 탈북자는 국경을 한번 넘으면 초등학교 졸업, 두번째 중국을 오면 고등중학교 졸업, 3번째 오면 대학 졸업, 4번째 오면 대학원 졸업 수준으로 북한의 현실에 대하여 새로운 이해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탈북자들은 당국이 지금까지 계속 인민들에게 거짓말만 해왔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며, 중국에서 돌아오면 가족과 친구, 친척들에게 외부의 소식과 북한의 현실에 대해 재해석을 하게 한다.¹⁶⁰⁾

탈출(exit)은 단순히 떠나는 행위이다. 한 사람이 탈출하면 다른 사람도 같은 방식으로 탈출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래서 탈출이라는 대안이 있으면 불만표출(voice)을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

158) 김철대 (47세, 1997.8 탈북, 1999.1 귀순, 과학원 수리공학연구소 연구사) 증언.

159) 김철대 증언.

160) Andrew Natsios, "The Politics of Famine in North Korea," USIP Special Report August2, 1999, p. 20.

히려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다. 1989년 동독의 경우 exit와 voice의 상호작용이 체제의 붕괴를 가져왔다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다.¹⁶¹⁾ 북한주민들에게 중국이라는 탈출구가 식량구하기 이상의 역할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4. 집단별 및 지역별 변이

지금까지 귀순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살펴본 북한 주민의 사회심리적 상태는 평양을 제외한 지방도시 및 농촌의 피지배계층에 일반적인 현상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평양 시민과 지방의 간부들은 현체제에서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교적 체제에 통합되어 있는 편이다. 그러나 그들은 더 많은 정보를 접하고 있는 계층이기 때문에 북한체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다 더 잘 이해하고 있으며 불만감도 가지고 있지만 겉으로 표현하는데 있어서는 매우 신중하다. 이러한 계층별, 지역별 차이를 보다 자세하게 살펴본다.

가. 노동자

북한에서 체제에 대한 불만은 당연히 간부층보다는 노동자, 농민에게 더 많다. 또한 농민보다는 노동자에게 더 많다. 노동자들의 직업상 특성 때문이다. 농업노동은 느슨한 노동인데 반하여 공업 노동은 매우 노동강도가 높다. 정보의 취득에 있어서 도시 노동자들이 농민

161) Albert O. Hirschman, "Exit, Voice, and the Fate of the German Democratic Republic: an Essay in Conceptual History," *World Politics*, vol.45, no.2, Jan., 1993, p. 177.

보다 더 유리하다. 도시노동자들이 농업노동자에 비하여 경제난의 타격을 더 빨리, 더 많이 받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경제 파동에 매우 민감하다. 경제난이 오면 도시지역 노동자들의 사회범죄가 즉각 증가하는 현상을 보인다. 노동자들은 농민들보다 즉흥적이고 거칠기 때문이다.

귀순자 증언에 의하면 체제에 대한 부정적 사건이 노동자 집단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한다. 국가가 규정한 질서, 제도를 안 지키는 것이 반항이라고 정의한다면 반항은 공장기업소의 노동자들 속에서 제일 많다고 한다. 경제상황이 악화되어 배급이 줄면 출근율이 떨어지고 노동규율이 문란해진다. 노동자들은 일찍 조퇴하여 장마장으로 나가며 장마당에 사람이 많아진다. 노동규정대로 일한다면 젊은 사람들은 장마당에서 보이지 말아야 한다. 장마당에 고가로 평가된 상품을 사기가 어렵기 때문에 범죄가 생기기 쉽다. 공장의 물건을 내다 팔며, 강도질 하기가 쉬우며, 줌도둑이 늘어난다.¹⁶²⁾

이러한 경제생활에서의 특징 때문에 북한에서 불평의 진원지는 노동자들이라고 한다. 지금 현실은 노동자들이 더 불평한다고 한다. 간부들은 아첨하느라고 눈알이 빨강다고 한다. 적어도 노동자들은 간부들을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다. “공부는 못해도 세상 정세는 더 잘 안다”는 것이다.¹⁶³⁾

나. 농민

농민들의 전통적인 특징은 토지에 대한 소유욕이다. 일제에서 해방된 후 1946년 토지개혁을 실시할 때 농민들은 환영했지만, 1958년 완료된 토지의 집단화 정책에 가장 반발했던 것도 농민이다. 농민들은

162) 차계명 증언.

163) 서철영 (25세, 청진철도국 남양분국 세천역 신호원, 1999.8.14 귀순) 증언.

체제 실패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다. 못먹고 못사는 문제의 책임이 토지제도에 있다고 생각한다. 농민들은 누구나 농업협동화 방식으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개인농화해야 먹는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한다. “협동화가지고는 안돼, 개인농해야 해”라고 거칠게 말한다고 한다. 김정일에 대한 반감이 묻어 있는 감정이다. 농촌지역에서의 이러한 생각은 농민, 간부 모두 마찬가지라고 한다.¹⁶⁴⁾

그러나 농민들의 반응의 양식은 노동자들과는 다르다. 노동자들은 좋은 싫든 즉시 반응을 보이지만 농민들은 반응을 잘 보이지 않는다. 인구의 밀도가 낮기 때문에 상호작용이 느리며 집단적인 반응도 느리며, 또한 도시 노동자보다 국가의 배급에 덜 종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농민들의 가장 흔한 불만 표출 방식은 무관심이라고 한다. 또한 열심히 일하지 않는 태업이 많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James Scott가 말레이시아 농촌지역에서 농민들의 정치적 태도를 일상생활형의 저항이라고 개념화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이다.¹⁶⁵⁾

다. 복잡군중

잠재된 불만이 가장 많은 집단이 정권초기부터 출신성분 때문에 복잡군중으로 분류된 집단이다. 월남자 가족, 6·25당시 치안대 가담자, 한국 귀순자 가족 등도 포함된다. 이들은 북한정권이 자기들을 적대시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겉으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는다. 행동만 잘하면 포용해준다고 겉으로 말한다고 한다. 북한체제에 깊은 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언동은 다른 집단보다 훨씬 더 조심을 해야 한다. 가벼운 불만 표출에도 다른 집단보다 더 엄한 처벌을 받기 때

164) 임복신 (48세, 제지공장 책임기사, 1998.10 귀순) 증언.

165) James Scott, op.cit.

문이다

남한에 귀순한 사람중에는 복잡군중 출신이 가장 많다. 입당, 대학 진학 등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북한체제로부터 가장 소외된 사람들이다. 복잡군중은 사회적 명예는 이미 포기하고 장사에 치중한다. 이들에 대해서 북한정권은 정세에 변화가 있을 경우 동향감시를 더욱 강화한다고 한다. 사회에 불만이 가장 많은 집단이기 때문이다.¹⁶⁶⁾

라. 대학생, 지식인

대학생들은 일반 사회집단보다는 김정일 정권에 더 비판적이라고 한다. 체계적인 교육을 통하여 현실을 분석하는 지적 능력이 더 발달했기 때문이다. 전문서적에 한정되기는 하지만 외국책, 외국잡지를 보는 기회도 있기 때문이다.

빠라사건, 낙서사건 등 주로 김정일을 욕하거나 현정부를 비판하는 반정부 활동이 대학가에서 빈번히 나타나기 때문에 대학담당 보위원은 밤잠을 잘 못자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로청 조직에서도 대학생 담당 부서가 가장 골머리를 앓는다고 한다. 종합대학에 소규모 반정부단체가 여러차례 적발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기관, 작가, 기자들 등 인테리 집단도 대학생 못지 않다. 지식인은 의식화가 다되었다고 한다. 황장엽 전 비서의 탈북이후 북한의 인테리들은 김정일 정권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었다고 한다. 황비서의 인격은 대단했던 것으로 인정되고 있었는데 황비서 탈북이후 북한 당국은 그를 형편없는 인간이라고 교육했다고 한다. 그래서 교육의 부작용이 크게 나타났다고 한다. 북한의 “현실

166) 임복신 (48세, 제지공장 책임기사, 1997.8 탈북, 1998.10 귀순) 증언.

이 오죽했으면 저 늙은 나이에 가족들 두고 뛰었겠느냐”고 말하면서 김정일을 더 나쁘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지각있는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학생과 지식인들이 반정부 음모를 쉽사리 못하는 이유는 첫째, 통제가 가혹하기 때문이다. 법이 없고 김정일의 말이 법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체제가 잘못된 줄 알면서 말은 못한다고 한다. 둘째, 지식인들은 힘이 없고 권력이 없으며, 소수이고 항상 양면성이 있기 때문이다. 노골적으로는 불만을 표출하지 않고 표정만 짓고 “어찌, 안됐어, 안됐어”라는 제스처만 취하면서 이 제도는 나쁘다는 뜻을 표현한다고 한다.

북한에서 젊은 세대의 사상성이 약하다는 것은 북한 당국이 자주 지적하는 바이다. “당의 품속에서 행복만을 알고 자랐기 때문에 사상성이 약하다”는 지적을 자주 하였다. 젊은 세대는 개인주의가 더 심하며, 새것과 외부사조에 민감하며, 참을성이 약하기 때문이다.¹⁶⁷⁾

마. 간부

간부층은 다른 어떤 계층보다 현체제에서 기득권을 향유하고 있기 때문에 체제에 대한 지지도가 높다. 저 체도가 유지되는 것은 절대적으로 간부층 때문이라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다. 북한에서 온 한 귀순자는 북한에 있을 때는 자신도 현 체도를 유지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었다 한다. 그는 김정일을 비판하는 말을 했다가 평양에서 김책으로 추방된 뒤에도 평양으로 다시 올라가겠다는 일념으로 살았으며 일탈행위를 전혀 않고 살았다고 한다. 일반주민들 중에서 당원들

167) 임복신 (48세, 제지공장 책임기사, 1998.10 귀순) 증언.

도 제도 유지를 선호한다고 한다.

최근 들어서 간부들 가운데서도 생각이 달라지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그 전에는 김정일이 죽으면 자신들도 죽는다고 생각했으나 이제는 아니라고 한다. 체제가 무너지면 죽는다는 인식은 옛말이라고 한다. 동구 사회주의국가가 다 무너져도 죽은 사람이 없다고 인식한다는 것이다. 권력을 쥐고 있던 사람들은 체제변화의 틈에서 부자가 되었다고 알고 있다. 특히 소련의 노멘클라투라가 체제변화 과정에서 기업경영자로 변신하여 부자가 된 사례가 많은 것을 잘 알고 있다고 한다. 1~2명만 거지가 되었고 똑똑한 사람들은 다 부자가 되었다고 한다. 동독 외무부 장관을 하던 사람은 짜베기 장사를 한다는 내용을 북한 당국이 비디오로 촬영하여 교육을 시키고 있지만 북한 외교관은 돈을 벌어도 다 국가에 바쳐야 하는 현실에서 그는 오히려 자유로우며, 번 돈은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¹⁶⁸⁾

이러한 측면을 볼 때 최근 권력 집단 사람들의 사상적 변화상태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상 교양을 할 때 동구사례를 잘못 이용하고 있다. 아예 사례를 말해주지 말아야 하는데 역효과를 내고 있다. 사상교양에도 불구하고 간부들은 구소련이 망하면서 북한체제가 갈데까지 갔다고 생각한다.¹⁶⁹⁾

바. 군부 및 정보기관

군부와 정보기관이 김정일 정권에서 가장 특혜를 받고 있는 집단이다. 다른 어떤 집단보다 김정일 정권에 가장 잘 통합되어 있다. 그러나, 군부인사들 중에도 김정일에 대한 충성은 존경심보다는 강제때

168) 이임영 (36세, 금수산의사당 경리부, 1997.12 귀순) 증언.

169) 이수동(이탈리아주재 북한공관원, 1998.2 귀순) 증언.

문이라고 보는 사람이 많다. 프룬제사건(1992년)은 러시아 군사 아카데미에 유학한 북한 군간부들이 중심이 되어 김정일체제 전복을 모의했다는 사건인데 관련자들이 모두 처형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가혹한 처벌의 여운이 남아 6군단사건이 발생했다고 증언하는 귀순자도 있다.

김일성이 사망하기전에 함경북도에 현지지도를 나가서 연합회의를 했는데 산하 군부대도 참여했다고 한다. 이 회의에서 김일성이 인민들이 소나무껍질을 벗기는 장면과 굶어죽는 현장을 눈으로 목격했다는 발언을 하자 6군단의 상장급 정치지도원이 발언하면서 “수령님이 이것을 모르고 계셨습니까”라고 불만을 표출했다고 한다. 이 발언이 문제가 되어 김정일이 발언자의 뒤를 캐어보라고 지시하여 6군단 사건의 사전계획을 들춰내었다고 한다.

6군단사건의 진압은 피비린내가 났다고 한다. 장성택이 진압을 지휘했으며 좌급까지 관련자를 모조리 숙청했다고 한다. 6군단 사건(1995년 10월) 이후 도망친 사람은 2명 뿐이었다고 한다. 그이후 군부에 반김정일 세력이 만만치 않게 증가되었다고 한다.¹⁷⁰⁾

보위부 내에서도 김정일에 대한 불만이 많다고 한다. 정보기관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실에 비판적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정보기관 사람들이 비밀리에 많이 처형된다고 한다. 귀순자 중에는 민심이 떠나면 정보기관 사람이 먼저 행동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독재자는 정보기관에 막강한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한다. 김정일이 보위부장을 겸임하고 있다는 것은 이러한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 보위부장의 임명과 관련하여 김정일은 “부장이 딱 있어야 되겠습니까?”라고 말한다고 한다. 오히려 부부장

170) 이수동 증언.

을 여러명 두어서 서로를 견제하게 한다고 한다.¹⁷¹⁾

5. 지역별 차이

체제에 대한 불만의 정도에 있어서 평양과 지방은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평양은 핵심계층과 간부들이 사는 곳이며, 배급도 상대적으로 양호하게 지급받고 있기 때문이다. 평양시민은 무엇보다도 이 체제에서 출세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주로 살고 있다. 한 귀순자는 평양에서 추방되어 김책에 와보니 일반주민들의 생각이 매우 비판적인데 놀랐다고 한다. 이 제도가 빨리 무너지라는 말은 못하고 “전쟁이나 꼭 터져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한다. 내적으로는 빨리 이 제도가 변화하기를 회구하지만 함부로 표현은 못하고 전쟁이나 나버려라고 우회적으로 표현한다고 한다. 이 제도가 지겹다는 뜻이며, 제도에 대한 반감으로 보면 된다고 한다. 그의 증언에 의하면 지방 노동자들은 거의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물론 지방에서도 간부급은 다르다.

중국 국경지대, 무산, 혜산, 신의주는 조선땅이 아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한다.¹⁷²⁾ 가령, 혜산시는 중국 개혁개방이후 1986년경부터 장사를 시작했으며 1987~1990년부터 성행했다고 한다. 혜산은 장사의 역사가 가장 길며, 혜산은 돈으로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한다. 장사하면 생각이 달라진다고 한다. 배급을 주지 않아도 지겹처럼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자기 마음대로 벌어들이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경제가 회복되어 배급을 제대로 준다

171) 이임영 (36세, 금수산의사당 경리부, 1997.12 귀순) 증언.

172) 김철대 (47세, 1997.8 탈북, 1999.1 귀순, 과학원 수리공학연구소 연구사) 증언.

해도 장사를 없애지는 못할 것이라고 한다. “이것이 무슨 사회주의냐, 자본주의이지, 사회주의를 지키려면 자본주의를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¹⁷³⁾

해산을 포함한 변강지역, 해외경험자, 귀국자는 거의 다 눈 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한다. 외국경험자 및 중국 변경지역 주민은 김정일이 나쁘다는 것을 다 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도 속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지 겉으로 표현은 못한다고 한다. 신의주, 혜산, 회령, 남양 등은 보위원이 특별히 신경쓰는 지역이다. 김정일이 변강 사람들에게 통제와 사상교육을 강화하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고 한다. 한중수교이후 연변지역에 한국인이 많이 와서 영향이 컸기 때문에 통제를 강화한다고 한다.

그에 반해서 평양시민들은 거의 대다수가 이 제도 그대로 고수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은 더 잘하고 있다고 한다. 평양시민은 더 비판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외국에 자주 다니는 사람이 많으며 수도시민답게 세상만물에 대한 관찰이 빠르기 때문이라고 한다.¹⁷⁴⁾

6. 변화추세

북한 주민들의 사회심리는 80년대까지 지배적이던 순응형에서 이제 심리적 이반형으로, 나아가서 탈출형으로 점차 변화하는 추세에 있다.

173) 김난애 (36세, 과학기술위원회 국가품질감독원 사무원, 1997.10.19 귀순) 증언.

174) 서영석 (23세, 함북 경성 인민학교 교원, 1998년 10월 탈북, 1999.1 귀순) 증언.

지금까지 살펴본 북한주민의 사회심리 변화의 핵심적 원인이 경제난과 정치적 억압에 기인하는데 불행히도 북한의 경제상황이 개선될 전망은 불투명하다. 70년대부터 경제가 계속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문제를 타진하고 바로잡는 정책은 추진하지 않고 자력갱생, 간고분투, 혁명정신, 고난의 행군정신, 낙동강을 건너는 정신 등 구호만 외쳐댄다. 정치적 구호만 가지고는 경제가 되지는 않는다.

북한 경제는 과국적 상태이다. 공장의 기계는 녹슬고 파철화되고 있다. 자재가 있어도 전력이 없어서 공장을 못돌리는 형편이며 자재마저도 부족하다. 명령경제체제에서 상부의 계획과 지령이 먹히지 않는다. 화폐가 공식금융기관을 통해서 유통되지 않고 비공식 영역에만 있다.¹⁷⁵⁾

김정일 정권이 체제를 지탱하는 것은 체제의 정당성과 그에 근거한 주민의 자발적 동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강제적인 경향이 더 많다. 국가가 선전, 보도 부문을 완전히 장악, 북한주민들은 김정일밖에 없는 것으로 인식하게 하고 있다. 귀순자들은 북한체제가 유지되는 것은 보안체제가 잘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는 사람이 다수이다. 너무나 본 것, 들은 것이 없기 때문에 현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지, 개혁·개방하여 새정보가 들어오게 되면 기름에 불 붙이는 격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는 사람이 많다.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가 붕괴된 것은 사상진지가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보고 사상교육을 강화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별 효과가 없다. 앞으로는 더욱 효과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제 중국을 오가는 일반주민들이 많아서 외부의 정보가 많이 전달되고 물건들의 유통도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은 편이다. 일제, 중국제 물건이 많이 유통되어

175) 임복신 (48세, 제지공장 책임기사, 1998.10 귀순) 증언.

물건과 대비해 보는 경향이 많다고 한다. 중국 물건을 암시장에서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북한 물건과 현저히 차이난다는 것을 인식한다.

간부들의 사상의식도 많이 해이해졌다. 최근 간부들의 생활총화 및 학습시간은 좋음 보충시간이라는 말도 있다. 앞에서는 만세부르고 뒤에서는 빈정대는 발언을 하며, 낮에는 사회주의, 밤에는 자본주의를 한다고 한다. 돌출행동은 못해도 말반동은 다 되었다고 한다.¹⁷⁶⁾

한 귀순자에 의하면 얼마전까지만 해도 북한인 절대다수가 김일성주의 교리의 신도가 되었으며 경제난 속에서도 체제가 유지되는 것은 50년간의 세뇌교육때문이라고 보았다. 외적 모습만 보고 순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80년대까지는 그랬으나 그이후는 달라졌다는 것이다.

최근에 와서 북한 주민들은 이 체제가 잘못되었다는 것, 지금껏 속아서 살아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그 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순응하는 척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외적으로 보면 순응하는 것처럼 보이나 내적으로는 안 그렇다는 것이다. 속 마음은 다 변했다고 한다.

북한주민들의 불만이 팽배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내적으로 충실한 것이 아님을 증명한다. 파고들어가 보면 사상의식이 다 무너졌다는 것은 북한 당국의 내부문건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한다.

작년에 국가보위부에서 숙청된 사람이 많다고 한다. 90년대 들어서 해마다 간부층의 숙청이 많다고 한다. 비밀리에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잘 알려져 있지 않다고 한다. 간부들의 잦은 숙청은 그 만큼 북한 체제가 불안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당국은 여론수렴 결과 식량난으로 소요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176) 이임영 (36세, 금수산의사당 경리부, 1997.12 귀순) 증언.

하였다고 한다. 민중폭동을 우려하여 1995년 경에 외국에서 폭동진압 장비를 구입해서 사회안전성과 철도안전부에 보급했다고 한다.

북한 지도부는 군부쿠데타 가능성에 대하여도 항상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지도부는 1917년 러시아 혁명이 군대에서 먼저 싹이 났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다고 한다. 1905년 흑해에 배치되어 있던 포템킨호 수병들이 배고픔과 처우에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킨 적이 있었는데 북한지도부에게 이것은 차우체스크의 군부에 의한 처형과 함께 큰 충격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지도부는 경제난이 심화될수록 군대에 대하여 배려를 많이 하고 있다. 장성들에 대하여 무더기 진급을 시키고, 선군사상을 도입하여 군의 위상을 높였다. 김정일의 군대에 대한 현지도가 매우 많은 것도 이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¹⁷⁷⁾

177) 차숙희 (35세, 북한군 대위, 군부대 정치지도원) 1997. 12. 귀순.

VIII. 결 론

북한 사회를 한 단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하여 북한의 사회심리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대로 북한주민들의 심리적 상황은 불만, 좌절, 분노, 감정정체 등 매우 불안정한 상황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매슬로우가 정의한 인간의 욕구 5단계 중에서 북한주민은 어느 것도 제대로 충족하고 있는 욕구가 없기 때문이다. 생리적인 욕구조차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의 욕구, 애정 및 소속감의 욕구, 자존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등 상위의 욕구는 기대하기 어렵다. 1차욕구 해소에 고착되어 있다.

북한주민들이 반정부 모의를 할 것이 우려되어 상호간에 고발하게 하고, 정보원을 암약시키고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원자화시키고 있다. 또한 동지관계를 장려한다는 명분으로 개인간의 친구관계를 금기시키고 있다. 북한주민들이 원초집단을 구성하여 인간적 정서를 만족시키고자 하는 욕구, 사회적 동물로서의 가장 원초적인 욕구인 인간의 신뢰를 정치적인 적으로 규정한 셈이다. 인간간의 신뢰를 제도적으로 파괴하고 있는 셈이다.

북한주민은 억압체제하에서 기본욕구 충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써 야기되는 불만을 표출하는 것조차 억압되고 있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감정의 막힘과 감정정체를 경험하고 있으며 그것은 한의 형태로 응어리져 남아있다. 경제난이 단순히 식량난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심리의 심부에서 고통을 주고, 인간적인 정서를 망가뜨리고 있는 것이다. 북한주민들은 대체로 전체주의 체제에서 경험하게 되는 성격변형이나 만성적인 불안감 같은 심리적 상태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주민들이 체제에서 심리적으로 이반하고, 사회일탈이 증가되자 북한당국은 사회통제를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 북한체제를 유지하는 두가지 기둥이 있다면 하나는 가혹한 처벌이다. 북한주민들은 정치범에 대하여 사정없이 죽인다는 말로 북한체제의 처벌제도를 지적하였다. 또한 공개처형으로 공포심을 유발하여 시민을 심리적으로 위축하게 하여 체제에 반항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가족연좌제이다. 행위자 개인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가족과 미래의 후대에까지 반역자의 가족으로 몰아서 연대처벌을 하는 것이다. 북한의 정권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만, 말이나 행동으로 발전시키지 못하는 것은 정치범에 대한 가족연좌제 처벌 때문이다. 가족연좌제가 북한주민이 느끼는 가장 공포스러운 사회통제의 메카니즘이다. 자기 한몸이면 목숨걸고 저항하겠다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가족과 후대 자손까지 당할 처벌이 무서워 주저앉는 것이다. 북한체제를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것이다.

유엔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을 마련하고자 「세계인권선언」(1945)과 「국제인권규약」(1966년 채택, 1976년 발효)을 마련하였다. A규약은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B규약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규정하였다. 지금까지 분석에 의거해 볼 때 북한주민은 국제인권규약의 A규약과 B규약이 규정한 권리중에서 만족스럽게 충족되고 있는 권리가 없다. 시민적·정치적인 권리는 권력의 집중과 엄격한 사회통제하에 질식되었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는 식량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회적·문화적 권리를 논의할 여지가 없다. 굶어서 죽으면서도 굶어서 죽었다고 말하면 반역자로 몰린다고 하여 병들어 죽었다고 말한다고 한다.

북한지도부는 이제 단순히 정권유지의 차원을 떠나서 민족의 보존

차원에서 의식전환을 해야 할 때이다. 무엇보다도 북한당국이 주민들의 식량난 개선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경제회생정책을 채택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그 과도기 동안 한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주민의 생존권 회복을 위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나아가 공개처형과 가족연좌제와 같은 비인도적 처벌방식을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국제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문제의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사회과학출판사 편. 「영도체계」. 주체사상총서 9. 서울: 지평, 1989.
- 서재진. 「또 하나의 북한사회: 사회구조와 사회의식의 이중성 연구」. 서울: 나남출판, 1995.
- _____. 「북한사회의 계급갈등 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
- 황장엽. 「나는 역사의 진리를 보았다: 황장엽회고록」. 서울: 한울, 1999).
- Avineri, Shlomo. *The Social and Political Thought of Karl Marx*.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8; 이홍구 역. 「칼 마르크스의 사회사상과 정치사상」. 서울: 가치사, 1983.
- Blumer, Berbert. *Symbolic Interactionism: Perspective and Method*. New Jersey: Prentice-Hall, 1969.
- Brzezinski, Zbigniew. *The Grand Failure: The Birth and the Death of Communism in the Twentieth Century*. Macmillan Publishing Co., 1989.
- Engler, Barbara. *Personality Theories*. Boston: Houghton Mifflin co., 1991.
- FAO/WFP. *Special Report: FAO/WFP Crop and Food Supply Assessment Mission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9, June, 1999.
- FAO/WFP. *Special Report: FAO/WFP Crop and Food Supply Assessment Mission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8 November, 1999.

- Gurr, T. R. *Why Men Rebel*.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0.
- Havel, Vaclav. et al., *The Power of the Powerless: Citizens against the State in Central-Eastern Europe*. New York: Sharpe.
- Kolakowski, Leszek. *Main Currents of Marxism, 2-The Golden Ag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78.
- Lenin, V. I. *State and Revolution*, Lenin's collected Works, vol. 5.
- Maaz, Hans-Joachim. *Der Gefühlsstau*. Argon Verlag, 1990; 송동준 역. 「사이코의 섬: 감정정체·분단체제의 사회심리」. 서울: 민음사, 1994.
- Maslow, Abraham. 2nd ed. *Motivation and Personality*. New York: Harper & Row, 1970.
- Mead, George H. *Mind, Self and Societ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7.
- Miliband, Ralf. *Class, Power and State Power*. New York: Verso, 1983.
- Perlmutter, Amos. *Modern Authoritarianism: A Comparative Institutional Analysis*; 김문조·임현진 역. 「현대국가와 권위주의」. 서울정음사, 1986.
- Scott, James. *Weapon of the Weak: Everyday Forms of Resistanc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5.
- Scott, James. *Domination and thje Arts of Resistance: Hidden Transcript*.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0.
- Walder, Andrew. *Communist Neo-Traditionalism*.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6.

2. 논문

- 신의진·천근아. “북한의 기아상태가 소아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학술발표회. 「북한사람-삶의 질, 굶주림, 남한사회 적응」. 1999년 12월 8일.
- 쁘레드라크 브라니찌기. Predrag Vranicki. “사회주의와 소외의 문제.” 에리히 프롬 편. 「사회주의 인간론」. 서울: 사계절, 1982.
- Gurney, Joan Neff and Kathleen Tierney. “Relative Deprivation and Social Movements: A Critical Look at Twenty Years of Theory and Research.” *The Sociological Quarterly* 23. (Winter 1982).
- Harsanyi, John. “Advances in Understanding Rational Behavior.” in Jon Elster ed., *Rational Choice*.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1986.
- Hirschman, Albert O. “Exit, Voice, and the Fate of the German Democratic Republic: an Essay in Conceptual History.” *World Politics*, vol. 45, no. 2, Jan., 1993.
- Kerbo, Harold. “Movements of Crisis and Movements of Affluence: A Critique of Deprivation and Resource Mobilization Theories.”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26, no. 4, December 1982.
- Kuran, Timur. “Now Out of Never: The Element of Surprise in the East European Revolution of 1989.” *World Politics*, vol. 44, no. 1.
- Natsios, Andrew. “The Politics of Famine in North Korea.” USIP Special Report. 2 August, 1999.
- Seeman, Melvin. “On the Meaning of alienation.” *American*

- Sociological Review*. vol. 24, 1959.
- Shelley, Louise I. "Crime in the Soviet Union." in Anthony Jones, Walter D. Connor, David E. Powell eds., *Soviet Social Problems*. Boulder: Westview Press, 1991.
- Shlapentokh, Vladimir. "Two levels of Public Opinion." *Public Opinion Quarterly*, vol. 49, 1985.
- Tong, Yanqi. "Mass Alienation Under State Socialism and After." *Communist and Post-Communist Studies*. Vol. 28, No. 2.
- Trembl, Vladimir G. "Drinking and Alcohol Abuse in the USSR in the 1980s." in Anthony Jones, Walter D. Connor, David Powell eds., *Soviet Social Problems*. Boulder: Westview Press. 1991.

최근 발간자료 안내

■ 연구보고서

96-01	김정일의 당권장악과정 연구	최진욱	저	6,000원
96-02	통일과정에서 매스미디어의 역할	이우영	저	6,000원
96-03	동·서독 인적교류 실태 연구	김학성	저	6,500원
96-04	동서독간 정치통합 연구	황병덕	저	6,000원
96-05	남북한 환경분야 교류·협력 방안 연구: 다자적·양자적 접근	손기웅	저	7,000원
96-06	북한과 주변4국의 군사관계	정영태	저	6,000원
96-07	한·미 안보협력 증진방안 연구	김국신	저	4,000원
96-08	동북아 평화체제 조성방안	여인곤·김영춘·신상진의	공저	10,000원
96-09	북한 경제개혁의 최적방안 연구	오승렬	저	6,500원
96-10	통일과정에서 민간단체의 역할	조민	저	5,000원
96-1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의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박영호	저	5,000원
96-13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제성호	저	5,500원
96-14	북한 사회의 계급갈등 연구	서재진	저	7,500원
96-15	통일과정에서의 정당역할 연구	김도태	저	4,500원
96-16	KEDO체제하에서 남북한 협력증진에 관한 연구	전성훈	저	5,000원

96-17	남북한 에너지분야 협력방안 연구	박순성	저	4,000원
96-18	북한이탈 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박종철·김영운·이우영	공저	7,000원
96-19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와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	허문영	저	5,500원
96-20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완화와 남북한 관계	김규륜	저	3,500원
96-21	북한의 노동정책과 노동력 평가	남궁영	저	6,000원
96-22	한·러 안보협력 방안 연구	강원식	저	8,500원
96-23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위기수준 평가 및 내구력 전망	김성철·정영태·오승렬외	공저	8,500원
96-24	북한체제의 변화주도세력 연구	이교덕	저	4,500원
96-25	북한의 농업정책과 식량문제 연구	최수영	저	4,000원
96-26	북·미관계 개선과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 전망	이현경	저	6,500원
96-27	한·일 안보협력방안 연구	전동진	저	4,500원
96-28	북한의 유일체제와 정책경쟁	안인해	저	5,500원
96-29	한·중 안보협력방안 연구	최춘흙	저	3,500원
97-01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러시아의 역할	강원식	저	5,000원
97-02	북·일수교와 남북한 관계	이교덕	저	3,500원
97-03	경수로인력의 북한체류시 법적 문제	제성호	저	7,000원
97-04	중·북관계 전망: 미·북관계와 관련하여	신상진	저	4,000원
97-05	북한 환경개선 지원 방안: 농업분야 및 에너지효율성 개선 관련	손기웅	저	5,000원

97-06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주변4국의 입장 분석.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 박영호·배정호·신상진·조한범 공저	5,500원
97-07	통일한국의 위상 옥태환·김수암 공저	6,000원
97-08	북한 간부정책의 지속과 변화 김성철 저	4,500원
97-09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체제개혁 비교연구 조한범 저	4,500원
97-10	김정일 정권의 안보딜레마와 대미·대남정책 홍용표 저	4,000원
97-11	북한의 지방행정체계: 중앙·지방관계 및 당·정관계를 중심으로 최진욱 저	5,000원
97-12	북한인권문제와 국제협력 김병로 저	6,000원
97-13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의 인도적 지원사례 이금순 저	6,000원
97-14	미국의 대북한 경제정책: 현황과 전망 김규륜 저	3,000원
97-15	통일교육 개선방안 연구 황병덕 저	5,000원
97-16	통일이후 북한지역 국유재산 사유화방안 연구 조민 저	5,000원
97-17	김정일 문예정책의 지속과 변화 이우영 저	4,500원
97-18	북한의 국방계획 결정체계 정영태 저	5,000원
97-19	'90년대 북한체제의 위기와 변화 박형중 저	4,500원
97-20	북한의 제2경제 최수영 저	5,000원
97-21	미·북관계의 변화와 한국의 대북정책 방향 박영호 저	5,500원
97-22	북한 장래에 대한 일본의 시각 김영춘 저	3,000원
97-23	북한의 관광실태와 남북한 관광분야 교류·협력방안 김영운 저	6,000원

97-24	클린턴 2기 미국의 대북정책	이헌경	저	4,000원
97-25	북한과 주변 4국 및 남한간 갈등·협력관계, 1984~1997	박종철	저	5,500원
97-26	북한외교정책 결정구조와 과정: 김일성 시대와 김정일 시대의 비교	허문영	저	7,000원
98-01	북한사회의 불평등구조와 정치사회적 합의	김병로·김성철	공저	6,500원
98-04	남북한이산가족 재결합시 문제점과 대책	임순희	저	4,000원
98-05	북한 외자유치 법령의 문제점	제성호	저	6,500원
98-06	미국의 대중·대베트남 관계정상화 과정 비교 북·미관계 개선에 대한 합의	이교덕	저	4,500원
98-08	경수로사업과 남북관계 개선방안	홍관희	저	4,000원
98-09	남북한 교차승인 전망과 한국의 외교·안보정책방향	박종철	저	6,000원
98-10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전략	신상진	저	4,000원
98-11	북한 대외무역의 특성과 무역정책 변화전망	임강택	저	7,500원
98-12	한국의 대미 통일외교전략	박영호	저	5,500원
98-13	통일독일의 군통합 사례연구	손기웅	저	5,500원
98-14	한반도 문제를 위요한 미행정부와 의회의 협력과 갈등	옥태환	저	4,500원
98-15	NGOs를 통한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 증진방안 연구	조한범	저	4,000원
98-16	남북한 통신분야 교류·협력 방안 연구	김규륜	저	3,500원
98-17	분단국 경제교류·협력 비교연구	황병덕	저	6,000원

98-18	북한의 해운산업 현황과 해운분야 남북한 협력 방안	김영운	저	6,000원
98-19	중·대만 비정치 분야 교류·협력 실태에 관한 연구	최춘흠	저	3,000원
98-20	조총련계 기업의 대북투자 실태	배정호	저	4,000원
98-21	일본의 대외원조 정책 연구: 북·일관계 정상화와 남북한관계	김영춘	저	3,500원
98-22	한반도의 군사적 투명성 재고전략: 점진적·포괄적 구상	전성훈	저	7,500원
98-23	미국의 4자회담 전략과 한국의 대응책	이현경	저	5,000원
99-01	미귀환 국군포로문제 해결방안	제성호	저	5,000원
99-02	탈북자 문제 해결방안	이금순	저	5,000원
99-03	한반도의 비핵화실현과 남북한·일본 3국비핵지대창설	전성훈	저	6,000원
99-04	탈냉전기 일본의 국내 정치변동과 대외정책	배정호	저	6,500원
99-05	남북 경제교류·협력 발전방안 연구: 추진성과 평가 및 발전대책	김규륜	저	5,500원
99-06	북한의 인사행정	최진욱	저	4,500원
99-07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의 구동동 지역 적용에 관한 연구	김영운	저	7,000원
99-08	김정일의 퍼스낼리티·카리스마·통치스타일	김성철	저	5,000원
99-09	북한경제의 변화와 인센티브구조: 비공식부문의 확산에 따른 개혁 전망	오승렬	저	5,500원
99-10	북한의 강성대국 건설: 경제부문 중심	최수영	저	5,000원
99-11	전환기의 북한 사회통제체제	이우영	저	5,000원

99-12	북한의 지역자립체제	김병로	저	7,000원
99-13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평가와 발전방향	조한범	저	4,500원
99-14	클린턴 행정부와 의회 관계: 대북정책을 중심으로	김국신	저	4,000원
99-15	북한의 사회심리 연구	서재진	저	5,000원
■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1996	옥태환·전현준·제성호의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1996</i>	옥태환·전현준·제성호의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1997	김병로·송정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1997</i>	김병로·송정호	공저	\$11.95
	북한인권백서 1998	최의철·송정호	공저	7,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1998</i>	최의철·송정호	공저	\$11.95
	북한인권백서 1999	최의철·서재진·제성호의	공저	7,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1999</i>	최의철·서재진·제성호의	공저	\$9.90
	북한인권백서 2000	제성호·최의철·서재진의	공저	7,000원
■ 연례정세보고서				
96	통일환경과 남북한 관계: 1996~1997			6,000원

97	통일환경과 남북한 관계: 1997~1998	5,000원
98	통일환경과 남북한 관계: 1998~1999	5,000원
99	통일환경과 남북한 관계: 1999~2000	6,500원
■ 학술회의 총서		
96-01	북한정세 변화와 주변4국의 대한반도정책	7,000원
96-02	탈냉전기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	9,000원
96-03	북한경제제도의 문제점과 개혁 전망	9,000원
96-04	북한의 대외관계 변화와 남북관계 전망	7,500원
96-05	남북한관계 현황 및 '97년 정세 전망	7,000원
96-06	4자회담과 한반도 통일전망	8,500원
97-01	4자회담과 한반도 평화	6,500원
97-02	분단비용과 통일비용	7,500원
97-03	한반도 통일을 향하여: 정책과 국제환경	7,000원
97-04	남북한 사회통합: 비교사회론적 접근	8,500원
97-05	한반도 급변사태와 국제법	4,000원
97-06	북한 경제난의 현황과 전망	7,500원
98-01	남북협력: 새로운 지평을 향하여	9,000원
98-02	대북정경분리정책: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가?	7,500원
98-03	동·서독의 정치통합이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	5,500원
98-04	동북아정세 변화와 남북 및 일북 관계 전망	6,500원
98-05	남북한관계와 주변4국의 대한반도정책	5,500원
98-06	법적 관점에서 본 독일 통일	2,500원
99-01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I): 장기·포괄적 접근 전략	5,500원
99-02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II): 장기·포괄적 접근 전략	7,000원
99-03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III): 장기·포괄적 접근 전략	6,500원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定期會員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定期會員制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보고서, 국문 및 영문 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 「정세분석보고서」 등)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1. 정기회원의 구분

- 1) 일반회원 :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 2) 학생회원 : 대학 및 대학원생
- 3) 기관회원 :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2. 회원가입 및 재가입

- 1) 가입방법 : ①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회비를 납부하신 入金證과 함께 본 연구원으로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이 취득됩니다.
② 본원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회비를 납부하신 입금증을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2) 연 회 비 : 회원자격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일반회원 및 기관회원 10만원, 학생회원 7만원
- 3) 납부방법 : 신한은행 온라인 310-05-006298(예금주: 통일연구원)
- 4) 재 가 입 : 회원자격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 회비를 재납부하면 됩니다.(재가입 안내장 발송).

3. 정기회원의 혜택

-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통일연구논총」과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을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보고서(년평균 25-30권), 학술회의 총서(년평균 5-6권), 정세분석보고서(년평균 10-15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4) 시중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본 연구원의 지난자료를 5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 5) 본원 홈페이지에서 모든 발간물에 대한 초록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며, 1997년~1998년 발간물은 원문을 온라인 상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기관회원의 경우 담당자 1인만 가능합니다.

4.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우편번호: 142-076)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전화: 901-2559, 901-2529 FAX: 901-2547)

